

수입차 전문 수리
블리카 대표 박형수

M. 010-8998-1048 H. 063-244-1048
F. 063-244-1043 전북 진주시 덕진구 인우동1가 943-9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공감뉴스 전·북·을·세·계·로

전북타임스

The JeonBuk Times

조기문법무사
해솔학행정사

법무사 / 행정사 조 기 문
(우)54859 전북특별자치도 진주시 덕진구 민성동1로 55, 8층 805호(민성동, 오케이타워11)
Mobile 010-2053-8741 Tel. 063-223-8741
Fax. 063-223-8742 E-mail. jokimoon@naver.com

2026년 1월 8일(목) 제 3241호

전북도, 소상공인 1조 4500억 금융지원 가동

전북신보 주축 보증 지원 추진
마이뉴스통장형 '희망재움' 신설
유동성 위기·고금리 부담 완화 집중
희생·저신용·육아안정 특례 확대

전북특별자치도는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경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6년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주축이 돼 총 1조 4,500억 원 규모의 보증 지원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런 지원은 소상공인의 단기 유동성 위기와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일시대출 중심의 금융지원 체계를 보완해, 필요 시 자금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마이뉴스통장 방식의 '소상공인 희망재움 통장'을 새롭게 운영한다. 희망재움 통장은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이용 중이거나 소액의 긴급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5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하며 업체당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수시 인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단기 자금난으로 인한 연체와 신용도 하락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소상공인 보증 수요 증가에 대응해 기존 핵심 보증사업도 확대한다.

또 '소상공인 희생 보증자금 금융지원 특례보증'은 지난해 3,750억 원에서 올해 4,170억 원으로 늘려, 경영여로기업과 첫 거래 기업, 성장 단계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보증하고 2~4% 수준의 이차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저신용·저소득 지역업체 특례보증은 150억 원 규모로 운영되며 업체당 최대 2천만 원 한도로 2% 이하



전북도, 대설·한파 대비 현장점검 강화 7일 노홍석 도 행정부지사는 진안군 일원을 방문해 도로 제설전진기지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마령면 한파센터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사진=전북자치도>

보증이 연계된다. 만 12세 미만 자녀를 둔 소상공인이나 임신·난임 치료 중인 소상공인, 결혼 7년 이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육아안정 금융지원 특례보증은 75억 원 규모로, 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보증하고 2% 이하보증을 지원한다.

아울러 전북자치도는 대환대출, 브릿지보증 등 기타 특례보증 사업을 포함한 총 17개 보증 상품을 이차보전 사업을 연계해 소상공인의 실질 금리 부담을 낮추고 고금리 상황 속에서도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할 방침이다. 전북자치도와 재단은 "긴급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융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총 1조4,500억 원 규모의 보증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든든한 금융 안

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신용보증재단(1588-3833)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장정철 기자

현 2심 확정 시 의원직 상실 선거사무장 징역형 여부도 관심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 무효형 확정 여부가 8일 대법원에서 나온다. 대법원 제1부는 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의 전 선거사무장 강 모 씨에 대한 상고심을 진행, 원심을 확정하거나 파기환송한다.

헌법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사무장이 징역형 또는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강씨가 2심과 같은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신 의원의 당선도 무효가 되고, 파기환송된다면 의원직을 유지된다.

신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씨의 선거법위반 행위를 알지

못했고, 알았다면 선거사무장으로 선임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사무장 선임전의 선거법위반 행위만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 2부는 지난 2025년 8월 28일 강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 캠프에서 활동한 신 의원의 보좌관인 심 모 씨와 전 보좌관인 정 모 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2면에서 계속>

전북도, 대설·한파 대비 제설·취약계층 현장 점검

제설전진기지·한파쉼터 점검
도로 8,338개 노선 제설대책 가동
한파쉼터 확대 등 보호 강화

전북도는 겨울철 대설과 한파에 대비해 도로 제설 대응체계와 한파 취약계층 보호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노홍석 도 행정부지사는 진안군 일원을 방문해 도로 제설전진기지과 한파쉼터 운영 실태를 살폈다.

진안읍에 설치된 제설전진기지를 찾아 제설자재 비치 현황과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강설 시 신속한 제설 작업이 가능한 대응 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이어 진안군 마령면 안방마을회관을 방문해 한파쉼터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이 시설은 접근성이 뛰어나 평소 노인 이용이 많으며, 겨울철 한파 시 취약계층의 안전한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위임국도와 지방도,

시·군도 등 총 8,338개 노선(연장 6,828km)을 대상으로 겨울철 제설대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제설 인력 1,275명과 장비 3,666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금·염화칼슘·모래·친환경 제설제 등 7만6,206톤의 자재를 확보해 도로 결빙과 폭설에 대비하고 있다.

울거늘 한파에 대비해 한파쉼터도 기존 5,438개소에서 5,907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독거노인과 거동 불편자 등 취약계층 39만 9,862명을 대상으로 생활지원사와 방문보건 인력을 통한 안부 확인도 강화하고 있다.

노홍석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겨울철 대설과 한파는 작은 대응 지연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준비와 현장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한파쉼터 운영과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정철 기자

신영대 당선 무효 확정 여부 오늘 대법원 선고

현 2심 확정 시 의원직 상실 선거사무장 징역형 여부도 관심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 무효형 확정 여부가 8일 대법원에서 나온다.

대법원 제1부는 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의 전 선거사무장 강 모 씨에 대한 상고심을 진행, 원심을 확정하거나 파기환송한다.

헌법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사무장이 징역형 또는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강씨가 2심과 같은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신 의원의 당선도 무효가 되고, 파기환송된다면 의원직을 유지된다.

신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씨의 선거법위반 행위를 알지

못했고, 알았다면 선거사무장으로 선임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사무장 선임전의 선거법위반 행위만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 2부는 지난 2025년 8월 28일 강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 캠프에서 활동한 신 의원의 보좌관인 심 모 씨와 전 보좌관인 정 모 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2면에서 계속>



신영대 의원

도, 야생 설치류 병원체 확인...인수공통감염병 선제 대응 강화

전북대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중심 지역감염예방선제대응체계운영 원헬스기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전북도는 최근 전라북도 지역 야생 설치류에서 인수공통감염병 병원체가 확인됨에 따라 지역 단위 감염병 감시와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를 중심으로 야생동물과 매개

체에서 확인되는 병원체를 조기에 분석하고 위험도를 평가해,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병원체가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관계 기관과 즉시 공유해 추가 조사와 감시를 강화하고, 필요 시 방역 조치 등 후속 대응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연구소는 고위험 인수공통감염병 연구가 가능한 ABL-3 생물안전차폐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감염병 발생

이전 단계에서 예방 중심의 전임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핵심 감염병 연구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연구소와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야생동물에서 확인된 병원체에 대한 정밀 분석과 전임상 연구를 연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는 선제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람·동물·환경의 건강을 함께 관리하는 원헬스(One Health) 개념을 기반으로, 수의학·의학·환경 분야가

연계된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해 인수공통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민선식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야생동물 병원체 확인 사례는 지역 차원의 감염병 감시와 선제 대응이 얼마나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를 중심으로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감염병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고 도민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7년 만에 녀석들이 돌아왔다?!
2026 겨울방학 특별기획전!
내가 누구~~게?
게판5분展 SEASON II
2025. 12. 25(목) ~ 2026. 2. 22(일)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오전 10시 ~ 오후 5시 30분
매주 월요일 휴관
※ 2월 16일(월) 정상운영
2월 17일(설날) 및 2월 19일(목) 휴관
주최·주관 : 남원시 문의 전화 : 063-620-5752~4

道 대외국제소통국, 연대·협력으로 도정 현안 성과

정치권·민간·출향도민 연대강화 정부부처와 적극소통 대광법 개정 피지컬AI 유치 등 핵심과제 견인 국가예산 10조원 시대 가교 역할

전북도 대외국제소통국(국장 백경태)은 지난해 '소통과 협치로 신뢰받는 대외협력 구현'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도정 현안 해결과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전방위적 협력체계 구축에 진력했다.

도정의 핵심정책 추진을 위해 정치권과 민간단체, 출향단체 등 다양한 주체와 긴밀히 협력했고, 출향도민, 고향사랑기부와의 연계를 강화한 전북사랑도민증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지역과 사람을 연결하는 새로운 협력 플랫폼을 구축했다.

지역 수요에 기반한 전북형 비자 정책과 외국인 정착 지원 확대를 통해 인구 감소와 산업 인력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외국인 인재 유치부터 정주·생활 지원까지 이어지는 체계적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또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도민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며 전북특별자치도의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고 있다.

특히 국회 및 중앙정부에 대한 전방위

적 소통과 수도권에서의 다양한 인적자원과 네트워크를 통해 전북도의 지지력을 결집해 주요 현안 해결에 기여했다.

정치권과 정부부처와의 적극적인 상시소통을 통해 전북도의 최대 현안인 대도시권 광역 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과 피지컬AI 실증사업 유치에 큰 역할을 했으며,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시 유치 및 전북특별자치도법 일부개정안 통과를 위해 출향도민을 결집시켜 자발적인 도정참여를 이어가도록 했다.

어려운 국가 재정 여건에도 전북이 최대규모(10조834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 사상 첫 국가예산 10조원 시대를 여는데도 가교역할을 충실히 했다.

이에 대해 백경태 대외국제소통국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도정 동반자로서 다양한 채널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며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고 외국인 정책을 선도해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 2022년부터 추진한 전북사랑도민증 업무를 출향도민과 고향사랑기부와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해 대외협력과로 이관하고 활성화 정책도 발표했다.



출향도민 용산역 도민증 홍보 협력 활동

<사진=전북도>

먼저 출향도민, 관광객 등 타깃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2024년 4천5백여명이었던 가입자수는 2025년 7만여명으로 양적 성과를 거뒀다.

지상파TV, SNS, 전광판, 출향단체 각종 행사, 도내의 주요 행사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입체적 홍보 전략으로 제도를 알리고 가입 참여를 유도했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농특산물 판매 플랫폼 생생장터, 투어패스, 전북농촌여행 참참 등 도내 주요 서비스 플랫폼을 연계해 '전북사랑도민'에게 특화된 혜택을 제공했다.

아울러 가입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할인가맹점을 대폭 확대했다.

2024년 43개소에 불과했던 가맹점을 2025년 441개소까지 확대했는데 경기전, 이성당 등 방문객이 많이 찾는 장소를 중심으로 집중 발굴했다.

전국적 출향도민 네트워크인 전북도 민회중앙회를 통해 도정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해 하계올림픽 유치, 전북사랑도민증 활성화 등 도정현안에 적극 협력하는 등 대외국제소통국은 지난해 달성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큰 역할이 기대된다.

/장정철 기자

<1면에서 이어서>

강 씨는 군산시장에인체육회 전 사무국장 이 모 씨에게 2023년 12월경 현금 1500만원과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전달하고, 제22대 총선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씨는 항소심에서 선거사무장으로 임명되기 전 행위에 대해서도 후보자 당선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신 의원이 후보자로 선출되기 전 목적으로 금품을 주고받았다"며 "금품을 받은 사람이 지정한 시점에 따라서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달리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강씨가 여론조사 왜곡에 사용된 휴대전화 99개가 검찰이 별건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휴대전화 속 전자정보는 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과 경위, 수단, 방법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휴대전화에 대한 추가 진술을 확보한 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을 내용으로 제2명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 기기 분해와 전자정보를 같이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민주당 경선에서 김의겸 전 의원에 1% 안팎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

신 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된다면 보궐선거는 오는 지방선거와 같이 실시된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연구원 2026 첫 백년포럼... '아침편지' 고도원 강연

전북연구원은 7일 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고도원 아침편지문화재단 이사장을 초청해 '누구나 글쓰기: 삶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도구'를 주제로 전북 백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AI 시대를 맞아 인간 고유의 사고력과 성찰 능력, 그리고 삶의 방향성을 회복하는 방안으로서 '글쓰기'의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마련됐다.

고도원 이사장은 강연에서 "글은 단순한 기록이나 표현의 수단이 아니라, 자신과 대화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과정"이라며 "글쓰기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쳐 지나가는 일상과 감정을 글로 붙잡는 순간, 평범한 삶은 성찰의 대상이 된다"며 글쓰기가 삶의 태도를 형성하는 중요한 도구를 설명했다.

강연에서는 독서와 글쓰기의 관계도 함께 다뤘다. 고 이사장은 "단단한 독서가 단단한 글을 만든다"며, 깊이 있는 독서 경험이 사고력과 표현력을 기르는 토대가 된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2·2·5 독서법', 발췌와 요약 등을 통한 읽기·쓰기 방법 등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독서·글쓰기 방법을 소개했다.

또한 글쓰기를 통해 개인이 회복할



고도원 이사장

수 있는 심리적 안정과 내면의 공간에 대해 설명하며, 글쓰기가 스트레스와 피로를 완화하고 일상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고 이사장은 20여 년간 이어온 '고도원의 아침편지' 사례를 언급하며, "한 통의 글이 개인을 넘어 공동체와 소통하고 공감을 확산시키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글쓰기는 개인의 성장을 넘어 사회적 이해와 연대를 넓히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특히 AI가 다양한 창작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는 현실과 관련해, 고 이사장은 "AI는 어떻게(How)를 해결하는 도구이지만, 인간은 왜(Why)를 묻고 의미를 만드는 존재"라며 "기술의 발전 속에서도 인간다움과 가치의 방향을 묻는 인문적 사고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사를 마친한 전북연구원 최백렬 원장은 "2026년 첫 백년포럼은 글쓰기와 인문적 성찰을 통해 개인의 삶과 사회의 지속가능한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안호영 "용인 반도체 전북 이전, 국가 성장 중심 도약분기점"

안 의원 "지금 전북이 나서야" 호소 수도권 중심 전략 정면 문제 제기 "전북 이전 지방 주도 성장의 시험대"



안호영 의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호소문을 통해 "용인 반도체 삼성전자의 전북 이전은 단순한 공장 유치가 아니라 전북의 산업 지형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성장 축을 재설정하는 문제"라며 도민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간절하게 요청했다.

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들어 '용인 반도체 전북 이전'은 불가하다"는 취지의 보도가 하루에도 수백 건씩 쏟아지고 있다"며 "수도권 정치인

과 언론이 전북 이전 주장에 대해 각종 논리를 동원해 사실상 용단폭격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사" 대통령께서 "자원의 집중과 기회의 편중은 이제 성장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라고 분명히 밝혀셨다"며 "국가 성장 패러다임을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전환하겠다는 국정 기조와 용인 반도체의 지방 이전은 정확히 맞닿아 있다"고 강조

했다. 이어 "용인 반도체의 지방 이전은 이제 전북만의 요구가 아니다"라며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소속 이병훈 국회의원이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을 통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증설 팍은 호남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그동안 전북이 제기해 온 '반도체 산업의 지방 분산'과 '에너지 기반 산업 재배치' 주장이 결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타당한 대안임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극 3특 체제'로의 대전환

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에너지 전환을 통한 전북 발전의 상징인 용인 반도체 전북 이전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전북은 자칫 새로운 국가 발전 구도에서 미아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안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침묵이 아니라 목소리"라며 "수도권의 거센 반대를 뚫고 전북의 요구가 대통령에게 분명히 전달될 수 있도록 도민과 지역 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달라"며 "저 안호영은 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전북 국회의원들과 함께 토크 토크 용인 반도체 삼성전자의 전북 이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극 3특 체제'로의 대전환

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에너지 전환을 통한 전북 발전의 상징인 용인 반도체 전북 이전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전북은 자칫 새로운 국가 발전 구도에서 미아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안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침묵이 아니라 목소리"라며 "수도권의 거센 반대를 뚫고 전북의 요구가 대통령에게 분명히 전달될 수 있도록 도민과 지역 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달라"며 "저 안호영은 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전북 국회의원들과 함께 토크 토크 용인 반도체 삼성전자의 전북 이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극 3특 체제'로의 대전환

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에너지 전환을 통한 전북 발전의 상징인 용인 반도체 전북 이전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전북은 자칫 새로운 국가 발전 구도에서 미아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안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침묵이 아니라 목소리"라며 "수도권의 거센 반대를 뚫고 전북의 요구가 대통령에게 분명히 전달될 수 있도록 도민과 지역 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달라"며 "저 안호영은 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전북 국회의원들과 함께 토크 토크 용인 반도체 삼성전자의 전북 이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에너지 전환을 통한 전북 발전의 상징인 용인 반도체 전북 이전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전북은 자칫 새로운 국가 발전 구도에서 미아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안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침묵이 아니라 목소리"라며 "수도권의 거센 반대를 뚫고 전북의 요구가 대통령에게 분명히 전달될 수 있도록 도민과 지역 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달라"며 "저 안호영은 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전북 국회의원들과 함께 토크 토크 용인 반도체 삼성전자의 전북 이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형 농어촌 기본소득, 장수·순창서 '순항'

순창신청률 35% 돌파 장수 접수 본격 1인당 월 15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부정수급 차단·지역경제 연계 병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인구감소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장수군과 순창군에

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관련기사 9면>

순창군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11개 읍·면에서 신청 접수를 시작해, 1월 6일 기준 전체 군민의 35%가 넘는 9,760명이 신청을 마쳤다. 장수군은 1월 7일부터 7개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사업 대상은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두

고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실제 거주한 군민으로,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 서류 검토와 실거주 확인을 거쳐 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급 대상이 확정되며, 군민 1인당 월 15만 원이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첫 지급은 2월 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사용 기한이 90일

로,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된다.

두 군은 사업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읍·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접수 창구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를 확대하는 한편,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도 병행된다. 장수군과 순창군은 전담 조사반을 편성해 실거주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위장전입이나 불법 유통 등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원금 환수와 제재부가금을 부과, 강제징수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도와 군,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북형 협의체'를

운영하며 지역산업과 연계한 소비 선순환 구조 구축에도 나서고 있다.

민선시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군민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라며,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 선순환과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지는 전북형 기본사회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겨울철 안전한 운전을 위한 준비과정?

자동차 예열

차량 탑승하여 시동 켜고 20~30초 예열하기

엔진온도 올라가기전 급제동 급가속 하지않기

성에(습기) 제

차량 REAR, FRONT 버튼 활용한 성에 제거

A/C 버튼으로 히터작동 시 과도한 습기 예방

타이어 관리

겨울철 타이어 공기압 적정 수치

승용차 - 30~33psi

RV- 35~40psi

운전습관

급정거를 피하고 브레이크는 부드럽게 사용

빙판길, 내리막길은 엔진 브레이크 사용

전주시 '간선급행버스체계 BRT' 연내 개통

호남제일문~한벽교교차로 BRT 1단계 11월 개통 예정

전주시 대중교통 간선급행버스체계 BRT가 연내 개통될 전망이다. 그동안 시는 시의 핵심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BRT 도입을 적극 추진해 왔다. BRT는 주요 도로망과 교차로 개선을 함께 추진하는 교통체계 혁신 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총 3단계 28.5km 구간 BRT 중 현재 공사가 추진 중인 1단계 기린대로 BRT가 오는 11월 개통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1단계인 기린대로 BRT는 호남제일문에서 한벽교교차로까지 9.5km



운동장네거리 조감도
이여 △여의광장사거리~추천대교 △

추천대교~기린로전자상가 △기린로전자상가-오목대의 3개 구간에서 동시에 공사를 추진한다. 전주시는 BRT가 도입되면 교통사고 등 교통약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질 것이다. 특히 BRT 도입과 대중교통 전환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효과가 기대되는 환경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22년 12월 BRT 추진 대상 지역의 범위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으로 확대되면서 전주시를 비롯한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BRT 사업 추진 시 국비 50%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김영태 기자

김관영 도지사 7일 2026년 첫 일정 전주시 방문

'전주 대도약 비전' 공유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2026년도를 맞아 도내 14개 시군 중 처음으로 전주시를 찾아 전주 대도약을 위한 비전을 공유했다. 전주시는 7일 김관영 지사는 "도전경성(挑戰竟成)의 처음과 끝, 도민과 함께 슬로건으로 전북도정과 전주시정 공유"를 위해 전주시를 공식 방문했다고 밝혔다.

전주시 방문에서 김 지사는 전주시의 회를 찾아 시의원들과 간담회를 나누며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어 시청 강당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도정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2026년 '여민유지(與民由之)' 사자성어를 소개하며 초심을 도민과 함께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특히 김 지사는 전북에서의 전주시의 의미를 되새기며, 전주의 대도약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도민과의 대화 후 사회복지 시설인 서원노인복지관을 찾아 시설 관계자와 이용자들을 격려하고 주요 사업을 청취했다. 아울러 노인들의 수업을 직접 참관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전주 서부시장을 찾아 전주 시 자생단체장들과 장보기 행사를 가진 후 만찬을 끝으로 공식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완산소방서 반려동물 우발적 화재 주의 당부

외출 중 화재 발생 큰 피해 이어져 특히 반려동물의 우발적 행동에 의한 화재 발생은 외출 중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초기 대응이 어려워 큰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전주완산소방서는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외출 시 전기레인지·하이라이트 등 전기기기 전원 차단 △조리대 주변 가연물 제거 △전원 버튼 잠금 기능 활용 △반려동물의 접근이 어려운 환경 조성 등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소민 기자

제13대 전북자치도 의용소방대 남·여 연합회장 선출

남성연합회장 완주 민국열 대장 여성연합회장 정읍 김성순 대장 전북도는 도청에서 제13대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남·여 연합회장을 선출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번 선출로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남성연합회장에는 완주 민국열 대장이, 여성연합회장에는 정읍 김성순 대장이 각각 선출됐다. 연합회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를 대표해 지역 의용소방대 간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고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로, 전북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적인 직무를 맡게 된다. 민국열 남성회장은 지난 2016년 입대 2023년 의용소방대장, 2024년 완주 연합회장으로 활동하며 지역 내 화재 등 크고작은 재난대응과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왔다. 특히 2024년 7월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생업을 뒤로한 채 복구활동에 전념하는 등 지역안전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또 김성순 여성회장은 지난 2004년 입대 이후 20여 년 동안 화재와 풍수해 등 각종 재난 현장 최일선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왔으며 독거노인 돌봄과 취약계층 반찬나눔 등 이웃을 위한 따뜻한 봉사활동을 지속해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5년 11월 '정읍시민의 장' 중 '애향 봉사장'을 수상했다. 민국열, 김성순 연합회장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의용소방대가 하나로 힘을 모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전북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에 대해 "의용소방대는 재난 발생 시 도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활동하는 지역의 핵심 안전 조직"이라며, "이번 제13대 연합회장 선출을 계기로 도내 의용소방대가 더욱 결속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앞장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주중앙성당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예고

1950년대 전주 대표 건축물

우리나라 대표 역사관광도시 전주시에 7번째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전주 중앙성당이 유력시되고 있다. 전주시는 국가유산청이 1956년 완공된 후 현재까지 전주교 주교좌본당으로 사용 중인 전주 중앙성당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중앙성당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최종 등록되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국가유산청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문화유산의 원형 보존에 중점을 둔 추진될 종합정비계획은 학술연구 및 고증을 바탕으로 문화유산의 진정성 및 가치를 유지하고, 보존과 활용이 합리적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립된다. 시는 이러한 정비계획이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거쳐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이를 근거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주 중앙성당은 1950년대



전주교인인 늘어나면서 새 성전 설립의 요구에 맞춰 1956년에 완공됐다. 다음 해인 1957년부터 전주 전동성당을 대신해 전주교구 주교좌본당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이는 국내 최초의 자치교구 주교좌성당으로 의미가 있으며, 전라북도건축사

기술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독특한 구조뿐만 아니라 다른 성당과도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성당의 종탑 상부 조각 기법과 지붕 목조 트러스, 원형 창호 및 출입문, 인조석 물갈기 마감은 유산의 가치 보존을 위해 반드시 보존해야 할 필수 보존 요소로 권고하기도 했다. 필수보존 요소는 문화유산의 가치보존을 위해 반드시 보존해야 할 구조나 요소로, 국가유산청에서 2024년 9월 처음 도입됐다. 전주 중앙성당은 30일간의 등록 예고 기간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될 예정이며,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필수보존요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전주 중앙성당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면, 전주에는 지난 2005년 신흥고등학교 강당 및 본관 포치를 시작으로 중앙동 구 바다옥, 다기동 구 중국인 포목상점, 전북대학교 본관, 전북대학교 구 문리과대학, 전북대학교 구 중앙도서관에 이어 7번째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의회,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업 발전 협력 강화

지역 농촌 현안 공유 협력 방안 논의

전주시의회는 7일 의정실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지사장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농업·농촌 현안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남관우 의장과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김세영 지사장을 비롯해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농업 기반시설 관리, 기후변화 대응 농업 인프라 개선, 지역 현안 사업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세영 지사장은 간담회에서 "지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관우 의장은 "농업과 농촌은 전주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농어촌공사와 지역 농업 발전 및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해 협력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덕진소방서 주유취급소 위험물 안전대책 추진

전주덕진소방서는 1월초부터 2월 중순까지 관내 일반주유취급소를 대상으로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겨울철 주유소는 대표적 고위험 시설이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의 화기 사용이나 주유 중 엔진 미정지, 흡연 행위 등은 작은 불씨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전주덕진소방서는 관내 일반주유취급소 중 10개소를 선정해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저장·취급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주요 안전관리점검 내용은 △위험물 시설의 구조·설비 기준 적합 여부 △부러거나 시설 설치 또는 변경허가 위반 △위험물 저장·취급 상태 △방화담 및 주유설비 유지관리 상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현장 관리 상태 등이다. 소방서는 위험물 취급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 유형과 예방 요령을 직접 설명하고, 난방기기 주변 관리, 위험물 취급 일시 작성, 비상상황 시 초기 대응 요령 등 실질적인 안전관리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전주덕진소방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으로 △주유 중 반드시 엔진을 끄기 △주유소 내 흡연 및 화기 사용 금지 △난방기기 주변에 가연물 방치 금지 등이다. /정소민 기자

2026년 전주시 덕진구 통장연합회 간담회 진행

'소통하는구정, 함께 만드는 덕진구'

전주시 '2026년 신년맞이 덕진구 통장연합회 간담회'가 개최됐다. 지난 6일 열린 간담회는 구정 운영 방

향 공유와 동별 주요 현안 등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덕진구 통장협의회와의 협력 방안 논의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이날 각 동별 생활 현안 또는 주민 건

의사항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아울러 덕진구 통장협의회 회장단은 지역 여건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덕진구는 이 자리에서 겨울철 재난에 대한 통장협의회 회장

단의 협조 △폭설 시 제설 작업 및 취약 구간 점검 △한파 취약계층 안부 확인 △방관길·화재 등 생활 안전사고 예방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 등을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전기안전공사-LG엔솔, ESS 안전 생태계 조성 '맞손'

안전관리 정책 지원 기술 교류·협력 등 업무협약 체결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7일 LG에너지솔루션(대표 김동명)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LG에너지솔루션 기술연구원에서 '에너지저장장치와 무정전전원장치 등 배터리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최근 북미 등 글로벌 시장에서 대규모 수주를 이어가며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과의 협력을 통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의 안전 기반을 선제적으로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에너지저장장치(ESS) 설비 안전관리 정책 지

원 △기관 간 정보 공유로 안전사고 대응 역량 강화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교류 △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 지원 및 기술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향후 ESS용 LFP(리튬인산철) 배터리가 적용되는 신규 사이트를 대상으로 운영 및 점검·검사 기준 등을 포함한 안전 관리 체계를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협의했다.

공사 남화영 사장은 "에너지 안보의 핵심인 ESS 산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력을 가진 LG에너지솔루션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이 믿고 활용할 수 있는 안전한 에너지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데 앞장 서겠다."고 덧붙였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제



한국전기안전공사는 7일 LG에너지솔루션과 LG에너지솔루션 기술연구원에서 '에너지저장장치와 무정전전원장치 등 배터리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적인 기술 협력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ESS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뒷받침할

제도 개선에도 힘을 모을 예정이다. /정혜민 기자



전북농협 '한영석의 발효연구소' 공로 인정

농심천심기치실현감사패전달

전북농협 김성훈 본부장은 7일 한영석의 발효연구소(소장 한영석)에 경제사업 활성화 유공 감사패를 전

한영석의 발효연구소 성과는 전북 쌀의 우수성과 지역 농산물 가공 기술력을 전국에 알린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전북농협은 K-라이스페스타에서 지역본부 경진대회 2위를 차지하며, 전북농협과 지역농협, 쌀가공업체가 함께 만들어진 협력의 성과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김성훈 본부장은 "전북농협은 앞으로 다양한 업체와 협력해 전북 경제사업 활성화와 농심천심(農心天心)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중기부,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시행계획 공고

생태계혁신형 프로젝트 팀 4년간 최대 2백억 원 지원

중기부는 공급기업, 수요기업 등 다수의 중소벤처기업이 협력해 생태계 전반을 혁신할 수 있는 일련의 기술을 개발하는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생태계혁신형' 시행계획을 8일 공고한다.

생태계혁신형은 다수의 중소벤처기업, 투자기관, 대학·연구소, 대·중견기업 등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팀'에 프로젝트당 4년간 최대 200억원의 R&D 자금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프로그램이다.

기존의 R&D 과제가 개별 기술 단위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과 달리, 생태계혁신형은 다수의 기업이 협력해 생태계를 구성하는 복수의 기술을 동시에 개발, 실증함으로써 기술적 장벽을 해결하고 산업 전반에 큰 파급효과를 미치는 핵심 선도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중기부는 국가경쟁력과 직결된 △AI·디지털 △첨단로봇·제조 △제약·바이오 △첨단소재·부품 △탄소·에너지의 5개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단계별 검증을 거쳐 국내 산업생태계 혁신과 글로벌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5개 프로젝트를 선정할 계획이다.

(1단계) 약 3개월간의 공모를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를 혁신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제를 8개 내외로 선정한다.

선정된 프로젝트팀은 최대 6개월간 기술·시장 검증(PoC, PoM), 30억원 이상의 민간투자금 유치, 프로젝트 팀 보완 등 사전준비과정을 거친다.

(2단계) 사전준비가 완료된 프로젝트 팀 중 사업성과 기술개발 타당성, 혁신성 등이 검증된 5개 과제를 선정해 4년간 최대 200억원 본격적인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R&D 투입규모가 큰 만큼 기술·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전문가(PM)가 과제 발굴단계부터 참여해 기술·시장검증, 프로젝트 팀 구성뿐만 아니라 R&D 수행과정 중 목표 변경과 중단까지 지원하는 '무빙타겟' 등 기존 R&D와는 구분되는 특화 지원체제도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공고 기간은 2026년 1월 8일부터 2026년 4월 7일까지다.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설명회도 2026년 2월 3일, 역삼 탑스타운 S1 및 온라인을 통해 개최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과수 한파 피해 예방 "전용 수성페인트 나왔다"

농촌진흥청·케이씨씨 공동 연구 통해 예방 기대

최근 겨울철 기온 변동 폭이 커지며 과일나무의 활동 시작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 이로 인해 과수의 한파 노출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1월에는 전남을 중심으로 영하 15도(°C) 이하의 한파가 닥쳐 전국 727헥타르(ha) 과수원에서 연 피해가 발생했다.

농촌진흥청(정장 이승돈)은 페인트 생산 전문 기업 케이씨씨(KCC)와 지난해 공동 연구를 통해 과일나무 연 피해(동

해)를 예방할 수 있는 과수 전용 흰색 수성페인트를 개발했다.

일반적으로 나무줄기에 흰색 수성페인트를 발라두면 낮에는 햇빛 반사로 나무껍질 온도가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고, 밤에는 기온 하강으로 인한 껍질 균열(터짐)을 예방할 수 있다.

이번에 개발한 과일나무 전용 페인트 제품은 햇빛을 반사·차단에 표면 온도 상승을 막는 차열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나무 균열 발생을 막는 능력과 방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연구진은 실험 재배지에서 아무 처리하지 않은 나무와 과일나무 전용 페인트를 칠한 나무, 돌로 나눠 실험을 진행

했다. 그 결과, 아무 처리하지 않은 나무는 낮 동안 대기 온도(0도) 대비 최대 13.1도(°C)까지 온도가 상승했다.

일반 페인트 신장율은 5% 미만이지만, 과일나무 전용 페인트는 120% 수준으로 24배 더 높아 나무의 팽창·수축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일반 페인트는 3분 내 수분이 침투했지만, 과일나무 전용 페인트는 40분 이상 수분을 차단했다.

방수성이 높으면 수분 유입을 차단, 세로파 파손을 방지함으로써 연 피해 저항성을 높일 수 있다.

농촌진흥청과 케이씨씨(KCC)는 과수 전용 흰색 수성페인트 제조 기술을 공

동 특허출원하고 이달 신제품을 출시한다. 올해 신기술보급사업(10ha)도 추진, 보급을 확대한다. 겨울철 연 피해 예방뿐만 아니라 여름철 햇빛에 의해 나무가 과열돼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저감 효과를 실증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 기초기반과 유수현 과장은 "이번 기술은 단순 제품 개발을 넘어, 기후변화로 인한 과수 재배 위험을 줄이는 실용적 기술이다"며 "사과·복숭아 등 주요 과수 재배지에서 실증을 확대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보급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중기중앙회, 새해 노란우산 온라인 가입 프로모션

2월 말 까지 가입 시 쿠폰 증정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026년 '노란우산 온라인 가입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 대표가 올해 2월 28일까지 노란우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규가입 시 5만원 상당 쿠폰(‘은누리 상품권’ 또는 ‘농협마트’ 중 택1)를 받을 수 있다.

은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골목상권 등 오프라인 가맹점과 은누리시장(onnurimarket.co.kr)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며 농협마트는 엄선된 국내 고급 농산물 선물세트로 구성돼 있어 신규 가입고객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노란우산은 페이어나 노령 등 경영 위기 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중기중앙

회가 운영하는 공적재도로 '26년 1월 현재 재적 가입자 185만명을 넘어선 대표적인 소기업·소상공인 안전망이다.

노란우산 가입시 소득공제 혜택(연 최대 600만원)은 물론 납입 원금에 연 복리 이자가 적용돼 목돈 마련에 용이하고, 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돼 위기상황에서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확보할 수 있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새해를 맞아 마련된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더 많은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우산이라는 든든한 사회안전망과 함께 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가입자 혜택 증대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란우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8899.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혜민 기자

전북대병원 '전북의 비경 사진전' 개최

우리문화사진연구회 주관 30일까지 전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이 병원을 찾는 내원객들에게 전북의 자연과 도시, 문화유산이 어우러진 작품들을 병원을 찾는 이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전하는 동시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 작품으로는 △옥구항교(김미선) △왕궁리5층석탑(김주) △설악구나 조오타, 자다가 오줌싸면 큰일이다(박성광) △아중호에 자란 나무가지, 아중호 우주인(박종관) △옛 군산세관, 둔용동성당(박찬웅) △신무산(엄영섭) △연꽃(이동녕) △구이저수지, 모악의 겨울(이상현) △나뭇가지에 걸린 물고기와 종소리, 범고의 용 침묵의 울림(이식) △피향정, 용산호미르샘(이창섭) △봄의 교향악, 수제전 피향정에 피어나다(이홍재) △태극물놀이, 전주 문화유산여행(황찬연) 등이 선보이

고 있다. 양종철 병원장은 "이번 사진전이 병원을 찾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를 전하는 문화 습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문화예술과 연계한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통해 치유 환경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중기중앙회와 새해 노란우산 온라인 가입 프로모션



전북대학교병원이 병원을 찾는 내원객들에게 전북의 자연과 도시, 문화유산이 어우러진 작품을 소개하기 위해 '전북의 비경'을 사진전을 열고 있다.

고 있다. 양종철 병원장은 "이번 사진전이 병원을 찾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를 전하는 문화 습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와 새해 노란우산 온라인 가입 프로모션

/정혜민 기자

전북도,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협력체계 강화

전북도는 7일 새마을금고중앙회 전북지역본부에서 전주·완주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전북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김종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새마을금고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금융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공동주택 건축 시 지역건설산업 참여를 보장하기 위

한 전북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시행 등 주요 민생경제 정책을 설명하고 새마을금고의 자산건전성 관리와 사회연대경제 주체에 대한 대응 확대 등 사회연대금융 기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 세계 3대 연금 중 하나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위치한 전북의 강점을 바탕으로 금융산업 생태계 조성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등의 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새마을금고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교육청,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AI 도입

AI 기반 학교안전사고 예측 모델 개발·새학기 개학 이전 학교 보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한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6년 신규사업으로 'AI 기반 학교안전사고 예측 모델'을 개발한다고 7일 밝혔다.

이 모델 개발은 체육활동 시간이나 점심시간, 쉬는 시간 등 일상적인 교육 활동 중에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한 취지로 추진된다.

사고 유형 또한 복합화되고 있어 AI를 기반으로 한 분석과 예측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안전사고 발생 예측 정보를 학교 현장에 제공해 기존의 안전사고 대응 중심에서 예방 중심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게 전북교육청의 계획이다.

전북교육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학교안전사고 사례를 조사한 자료를 보면 사고는 5월과 11월 등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점심시간 전후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7.5%가, 체육시간에 28%가 발생하는 등 시간대별·활동별 뚜렷한 패턴이 확인됐다.

사고 장소는 강당·체육관과 운동장이, 사고 병명은 골절과 염좌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월별·시간대별 사고 사례는 물론이고 학교급별·활동유형별·기상조건별 사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AI 기반 학교안전사고 예측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AI 예측 모델은 과거 사고를 단순히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교 유형과 교육환경에 따라 사고 위험도를 예측해 '학교안전 예보' 형태로 학교에 제공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전북교육청은 강조했다.

이 모델은 안전교육 자료, 지도 문구, 체크리스트 등과 연계해 교사가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됨으로써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I 기반 학교안전사고 예측 모델은 다음 달 중 학교 현장에 보급될 예정이다. 강경단 학교안전과장은 "학교안전사고는 우연이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AI 기반 예측 모델을 통해 교사와 학교가 사고 위험을 미리 알고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학생 안전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다"라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21일까지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

12개분야 총 15억원 내외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년도 지방보조금(민간보조) 지원사업' 공모를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 접수받겠다고 밝혔다.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은 건전한 시민사회단체를 육성하고, 민간의 교육사업 참여를 확대해 다양한 교육수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학생 중심 전보교육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 공모 분야는 △경제교육 △독서토론 교육활동 지원 △예술활동 지원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환경교육 지원 △민주시민교육 지원 등으로 총 예산 규모는 15억원 내외이다.

지원 대상은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사무소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사업범위가 학생·교직원·학부모를 비롯한 초·중등교육 관련 사업인 단체 △공공일 현재 최근 1년 이상 공

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등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단체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인 '교육정보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북교육청은 사전심의 및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단체는 분기별로 집행 내역을 공개해야 하며, 전북교육청은 보조금사업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완료 후에는 사후 성과평가를 실시해 다음 연도 보조금사업 심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상곤 예산과장은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적정하고 필요한 보조사업이 선정돼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적정한 규모로 지원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겨울방학 학습 공백은 최소화, 학습 역량은 강화"

전북교육청, 학습 수준 따른 지원 프로그램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겨울방학 동안 학생들의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 학습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부터 중위권 학생까지 아우르는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겨울방학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초학력 보강 강화 △중위권 학생의 학습 역량 제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 더 많은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 성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전주교육대학교와 연계한 '겨울방학 학력신장 캠프'를 오는 12-16일까지, 2박 3일 과정으로 2회에 걸쳐 진행한다. 도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90여 명이 참여한다.

특히 이번 겨울방학에는 기초학력 지

원이 필요한 학생뿐만 아니라 중위권 학생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해 학습 수준에 따른 지원에 중점을 뒀다.

예비교원과 현직 교사로 구성된 강사진이 체계적인 학습 지도를 제공하며, 학생 개별 수준에 따라 보충이 필요한 과목을 선택·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내 133개 초등학교에서 총 654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이 프로그램은 학교별 여건과 학생 특성을 반영한 교과보충 중심의 학습지원이 이루어지며, 다음 학년 학습으로의 원활한 연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주에서는 10개교를 대상으로 약 20일간, 총 13회에 걸쳐 학습코칭 캠프를 운영하며 6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1:1 학습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110명에게 맞춤형 학습 상담을 제공한다.

완주는 약 8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도란도란 학습 상담'과 '학습진로캠프'



를 운영해 학습 보충과 진로·학습 상담을 병행 지원한다.

진안과 무주는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학교와 학력지원센터가 협력해 1:1 교과 보충 수업을, 장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글 지도 및 문해력 향상 방법 연수를 총 3회에 걸쳐 운영하는 등 가정과 연계한 학습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최재일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방학은 학습 격차가 벌어지기 쉬운 시기인 만큼,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춘 체계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책임지는 맞춤형 학습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전북현대모터스FC '철벽' 센터백 조위제 합류

수비 라인 세대교체

전북현대모터스FC(단장 이도현)가 뒷문 강화를 위해 부산 아이파크의 '철벽' 조위제(24)를 영입하며 수비진의 세대교체를 가속화한다.

전북현대대는 7일 부산 아이파크에서 맹활약하며 K리그 최고의 중앙 수비수 유망주로 손꼽히는 조위제의 영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입은 팀의 견고한 수비 전통을 이어가고 동시에 한층 더 젊고 역동적인 수비 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전술적 선택이다.

2001년생인 조위제는 189cm, 82kg의 우월한 신체 조건을 바탕으로 한 공중볼 장악 능력이 탁월하다.

큰 키에 빠른 스피드와 영리한 위치 선정 능력을 갖추고 있어, 대인 마크와 커버 플레이 모두에서 리그 최정상급 기량을 선보였다.

부산 아이파크의 핵심 센터백으로 활약하며 수비 리더십 능력을 검증받은 조위제는 U-23 대표팀을 거치며 차세대 국가대표 수비수로도 주목받고 있다.

프로 5년 차에 접어든 조위제는 K리그 2 무대에서 4년 동안 104경기에 출전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빌드업 능력과 수비 범위가 넓어 팀 전술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현대대는 조위제가 기존 베테랑 수비진과 호흡을 맞춰 팀의 안정감을 더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북 수비의 핵심축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전북현대 유니폼을 입게 된 조위제는 "K리그를 상징하는 전북현대에 합류하게 돼 가슴이 벅차다. 전주에서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날을 꿈꿔왔다"며 "팀의 우승을 위해 헌신하고, 팬들에게 믿음을 주는 수비수가 되겠다"고 입단 소감을 밝혔다.

/장정철 기자

고창-EBS 자기주도학습센터 개소, 미래 인재 양성 첫발

양질의 교육 기회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한숙경)은 8일 고창-EBS 자기주도 학습센터개소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최종 선발된 고창 관내 중학교 2-3학년 27명과 학부모, 고창교육지원청 및 EBS 관계자가 참석해 지역

교육 혁신의 힘찬 출발을 축하한다.

고창 창의예술미래공간(고창읍 보릿골로 35) 3층에 자리잡은 '고창-EBS 자기주도학습센터'는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놓여준 지역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수도권과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자 고창교육지원청과 EBS가 협력해 설립했다.

센터 1기 학생으로 선발된 27명은 앞

으로 8개월간 EBS의 우수한 온라인 강의 콘텐츠와 AI 기반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AI 코스웨어), 전문 학습 코디네이터의 1:1 밀착 관리를 받게 된다.

학습 코디네이터는 학생들의 학습 계획 수립, 진도 관리, 학습 습관 형성, 진로 상담 등 전반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하며 학생들이 진정한 자기주도적 학습자로 성장하도록 도울 방침이다.

한숙경 교육장은 "앞으로 자기주도 학습센터는 학생 스스로의 힘으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든든한 발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책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EBS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성민 기자

겨울철 독감 예방 수칙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히 30초 이상 손씻기



기침할 때 기침예절 실천



기침과 열이 나면 반드시 마스크 착용



2시간마다 10분 이상 실내 자주 환기하기



독감 예방 접종 맞기



독감 유행 시기에는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 않기

정읍시 '2026년 후계농업 경영인 육성사업'신청자 모집

정읍시가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하고 지역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발굴에 나섰다. 정읍시농업기술센터(소장 강용원)는 최대 5억원의 창업 자금을 1.5%의 저금리로 지원하는 '2026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자를 오는 2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미래 농업을 선도할 인재를 발굴해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안정적인 농업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신청 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49세 미만인 자로, 영농 종사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인 농업인이 대상이다. 또한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고도화에 따라 구축된 '농업e지(mongupez.go.kr)' 누리집을 통해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강용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정읍 농업을 이끌어갈 열정 있는 예비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 청년농업인, 지역 아동 위한 친환경 무농약쌀 100포 기탁

익산시 과수영농부산물 파쇄지원 사업에 참여한 청년농업인들이 지역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는 나눔을 펼쳤다.

익산친환경농민협동조합 청년위원회(위원장 김진용)는 7일 익산시 용안면에 위치한 은혜마을 맑은집을 찾아 친환경 무농약 쌀 10kg 100포(420만 원 상당)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익산친환경농민협동조합 남궁진업 이사장을 비롯해 김진용 청년위원장 등 청년위원회 관계자 7명이 참석해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에 함께했다.

청년위원회는 앞으로도 농업 현장과 지역사회를 잇는 다양한 공익 활동을 통해 상생과 나눔의 농업 가치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용 청년위원장은 "농업 현장에서 흘린 땀의 가치를 지역사회와 나누고 싶다는 회원들의 뜻이 모여 이번 후원이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농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 영등2동, 이웃과 이웃 잇는 돌봄 공동체 가동

익산시 영등2동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이웃 돌봄 활동이 올해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영등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하명남·유방용)는 7일 '영등2동 이웃에(愛)돌봄단'의 올해 활동 시작을 알리고,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영등2동 이웃에(愛)돌봄단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통장과 부녀회 등 주민 8명으로 구성됐다. 올해 상·하반기 각각 8세대씩 연간 총 16세대의 독거노인과 1대1 결연을 맺어 맞춤형 돌봄 활동을 펼친다.

돌봄단은 결연 대상자 가정을 주 1회 정기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위기 상황 등을 파악해 행정복지센터로 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대상자의 필요를 반영해 밀반찬과 생필품, 과일 등을 교차 지원하며 생활 부담을 덜고 영양 관리를 돕는다.

하명남 영등2동장은 "이웃에(愛)돌봄단은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어려운 부분을 주민의 관심과 나눔으로 채우는 의미 있는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고, 주민 모두가 행복한 영등2동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체류형 관광 경쟁력 키운다

군산문화관광재단 지역주도형 관광서비스 경쟁력 강화사업 선정

군산문화관광재단(이사장 김임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6 지역주도형 관광서비스 경쟁력 강화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재단은 국비 6천만 원에서 최대 1억 4천만 원 규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2차년도 사업을 연속 추진할 수 있게 됐으며, 관광 거점과 지역 협업을 중심으로 체류형 관광서비스 고도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그간 재단은 2025년 1차년도 사업을 통해 관광 거점 공간 조성 및 시범 프로그램 운영 등 기반 마련에 집중해 왔다.

세부적으로는 △관광 거점 공간 조성 △관광콘텐츠 시범 운영 △지역 창작자·상관·관광 주체 협업 기반 마련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이 중 여행사 쉽터 기능을 갖춘 복합문화공간 '군산항1981' 운영과 지역 창작자·상관과 협력한 원데이클래스,



군산문화관광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6 지역주도형 관광서비스 경쟁력 강화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루프탑 야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도는 방문객 유입과 체류 시간 확대의 가능성을 확인시켜줬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재단은 올해, 관광 서비스의 완성도와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재방문을 유도하는 요소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추진 내용은 △관광 거점 공간 운영 고도화 및 서비스 품질 개선 △체류형 관광 콘텐츠 확대 및 지역 협업 프로그램 본격화 등이다.

재단은 이를 통해 관광 거점을 중심으로 방문 동기를 강화하고, 단순 방문에 그치지 않는 체류재방문 중심의 관광 구조로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2차년도 연속 선정은 지난해 사업 성과와 지역 주도의 운영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를 만들어 지역 관광 경쟁력을 꾸준히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청년까지 넓은 농식품 바우처 지원

12월까지 수시 신청 월 4~18만 7,000원 지급

익산시가 농식품 바우처 지원을 확대해 더 많은 시민의 건강한 식탁을 뒷받침한다.

익산시는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 농식품 바우처 신청을 오는 12월까지 수시로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운데 임신부, 영유아, 아동, 청년을 포함한 가구다. 특

히 올해부터 청년을 포함한 가구가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매월 1인 가구 4만 원부터 10인 가구 18만 7천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바우처는 매달 정기적으로 제공돼 식생활 부담을 덜어준다.

지난해 바우처 이용자들은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접수된다. 신규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농식품 바우처 공식 누리집www.foodvoucher.go.kr)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익산=최준호 기자

대상 품목은 국산 과일류와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 등으로 지정된 사용처에서 구매하면 된다. 사용 가능 매장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 바우처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식품 바우처는 시민들이 신선하고 균형 잡힌 농식품을 섭취해 건강한 식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소급지원이 되지 않는 만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가구는 꼭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2026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취약계층 지원 위한 나눔 시민참여 확산 기대

이학수 정읍시장이 2026년 새해를 맞아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행렬에 동참했다. 정읍시는 7일 이학수 시장이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 2026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며 지역 사회에 훈훈한 온기를 불어넣었다고 밝혔다.

이날 시청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이학수 시장을 비롯해 대한적십자사 전북

특별자치도지사 김홍식 회장과 대한적십자봉사회 정읍지부협의회 김경숙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홍식 회장은 적십자 인도주의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이 시장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 특별회원증을 수여했다. 적십자 회비는 재난 구호 활동과 취약계층 지원 등 인도주의 사업을 위해 전 국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성금이다. 현재 대한적십자사 전북 2026년도 적십자 회비 모금을 진행하

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오는 1월 31일까지를 1차 집중 모금 기간으로 정하고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을 통해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길 바란다"며 "정읍시는 앞으로도 대한적십자사와 긴밀히 협력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더불어 사는 나눔 문화 확산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청년 면접정장 대여 사업 본격 시행

취업 준비 비용 부담 완화 청년 사회진입 지원

군산시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원활한 사회진입을 돕기 위해 '청년 면접정장 대여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일부터 신청모집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사업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조건을 확대·개편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먼저 기존처럼 18~39세 해당 청년이 군산에 있는 사업장 면접을 받을 때는 주소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

다. 특히, 올해부터는 군산에 주소를 둔 청년의 경우 타 지역 사업장 면접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넓혔다.

신청된 청년에게는 면접에 필요한 정장·셔츠·블라우스, 구두 등의 코디 물품을 1회당 3박 4일간 무료로 대여하며, 1인당 연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모의 면접이나 대학(원) 진학 면접, 취업과 직접 연계되지 않는 면접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군산시 청년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면접 일정과 관련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승인된 대상자는 발급된 쿠폰을 이

용해 대여업체를 통해 방문 또는 택배로 정장을 수령·반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 면접정장 대여 지원사업은 취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라며, "올해는 지원 대상을 확대한 만큼 청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취업에 도전하길 바란다. 시는 앞으로도 청년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6년 청년 면접정장 대여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되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청년뜰 누리집 또는 군산시 인구대응담당관 청년정책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장학숙, 2026년도 입학생 98명 모집

내달 3일까지 신청

정읍시민장학재단이 지역 인재 양성의 거점인 '정읍장학숙'의 2026년도 입학생 선발 요강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모집 절차에 돌입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정읍 장학숙은 연면적 3997㎡ 규모에 지상 6층, 지하 1층으로 조성돼 있으며,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지하철 1호선 석수역에서 도보 5분, KTX 광명역에서 대중교통으로 15분 거리에 있어 수도권 주요 대학으로의 통학이 매우 편리하다. 입학생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입사비 연 7만원과 매월 15만원에서 20만원 수준의 사용료로 책정돼 있어, 수도권의 높은 주거비에 비해 경제적 부담이 매우 적다.

이번에 선발하는 인원은 남자 43명, 여자 55명 등 총 98명이다. 선발 순위는 수도권 소재 2년제 이상 대학(원)의 신입생 및 재학생이 1순위

에 해당한다. 2순위는 통학이 가능한 비수도권 대학교 재학생이나 재학생, 휴학생, 그리고 졸업 후 5년 이내의 취업준비생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입학생 선발은 학업 성적과 생활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된다. 신규 입학생의 경우 학업성적상 50점과 생활정도 50점을 합산하며, 국가공공자 자녀나 다자녀 가정, 문화 가족 등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재입학생은 학업성적과 생활태도, 생활 정도 등을 평가해 선발하며, 만약 재입학생 모집 정원에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신규 입학생 중에서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입사 신청은 오는 2월 3일까지 진행된다. 접수는 정읍시민장학재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다. 최종 선발 결과는 심사를 거쳐 2월 6일 정읍시민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세계 각국 기념물, 익산글로벌문화관에 등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제협력팀 그림전통의류등 32점 기증

세계 각국의 문화가 익산글로벌문화관을 통해 시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익산시는 7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제협력팀이 국제교류 과정에서 수집한 세계 각국의 기념물 32점을 익산글로벌문화관에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증된 물품은 몽골, 페루, 이집트, 팔레스타인, 우간다 등 여러 나라의 문화와 예술적 특징을 담은 자료들이다. 그림과 액자, 전통 의류, 생활 소품

등 다양한 형태의 기념물이 포함됐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제협력팀은 국제교류의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세계문화를 보다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기념물을 익산글로벌문화관에 전달했다.

익산글로벌문화관은 기증받은 기념물을 체계적으로 소장·관리한 뒤 상설 또는 특별 전시로 선보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익산글로벌문화관이 세계 문화를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접수

군산시가 오는 1월 12일부터 2월 말까지 '2026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보상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며 국방부에서 2021년 12월 말에 지정·고시한 옥서면, 미성동, 소룡동, 옥구읍의 일부 지역 주민이 해당한다.

2026년 보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보상금 지급 대상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또한 2025년도 보상 대상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도 5년 내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지연이자는 지급되지 않는다.

보상금은 전액 국비이며, 소음대책 지역 중별로 최대 제1종은 월 6만 원, 제2종은 월 4만5천 원, 제3종은 월 3

만 원이며 전입 시기, 직장 또는 사업장 위치 등의 감액 조건에 따라 개인당 받는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다.

접수는 옥서면·옥구읍·소룡동·미성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 기후환경과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에서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신청을 검색해 신청 내용을 입력하고 첨부 서류를 증명해 접수하면 지자체 담당자의 검토 후 신청이 완료된다.

군산시는 1월 중에 보상금 지급신청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올해 5월 말 군산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한 후 8월 말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청년 재도약 돕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추진

정읍시는 청년들의 원활한 사회 진입을 돕는 '2026 청년도전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2025년에 이어 2026년도에도 연속성을 가지고 운영된다.

취업 실패나 장기 미취업으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진 청년들에게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해 다시 노동시장으로 이끄는 것이 핵심 목표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중, 최근 취업이 어렵거나 직업 훈련 참여가 어려웠던 청년이다.

시는 참여자 개개인의 상황과 목표에 맞춰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단기, 중기, 장기 등 세 가지 과정으로 세분화해 운영한다. /정읍=김정인 기자



사업 수행기관인 정읍시 청년지원센터 '청정지대'의 정태규 센터장은 "이번 기회가 지역 청년들에게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부안군, 1군민1후원계좌 캠페인 '성과'

전체 후원 모금액 전년 대비 약 20% ↑ 기부문화 확산 실현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은 2025년에 장학금 1군민 1후원계좌 갖기 범군민 후원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기부문화 확산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군민과 공직자가 함께 참여한 홍보 릴레이와 현장 캠페인을 통해 1만원의 기적 정기후원계좌 개설을 적극 홍보한 결과 지난해 한 해 동안 900여명의 군민이 정기후원에 새롭게 동참했다.

일시 기탁을 포함한 전체 후원 모금액은 9억 1000만원으로 전년 7억 6000만원 대비 약 20% 증가했다.

재단에는 공직자와 농업인 단체, 의용소방대, 소상공인, 지역 기업 등 각자의 자리에서 지역을 지켜온 이웃들의 따뜻한 나눔이 꾸준히 이어졌다.

이러한 기부는 단순한 금전적 후원을 넘어 지역 공동체가 다음 세대를 함께 키운다는 연대와 책임의 가치를 보여줬다.

특히 장학금 지원을 통해 성장한 인재들이 다시 후원자로 참여하는 선순환 사례는 재단 장학사업이 지향하는 지속 가능한 기부문화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재단은 2017년 대학 1학년 등록금 지원을 시작으로 장학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2023년에는 전국 최초로 대학교 전 학년·전 학기 반값등록금 지원을 실현했다.

이를 통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구현하

고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했다.

현재 매년 약 2200명의 학생에게 20억원 이상의 장학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셋째 이상 다자녀 가구 학생에게는 100만원의 다자녀 장학금을 추가 지원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창업 준비를 위한 맞춤형 장학제도도 운영하는 등 교육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재단 설립 이후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반값등록금 완성과 기부문화 확산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장학사업을 매개로 사랑과 사람, 현재와 미래를 잇는 지역 인재 육성의 중심 역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겨울방학 대학생일자리사업 시행

28명 선발...취업경쟁력 강화

고창군이 대학생들에게 직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학비마련과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6년 겨울방학 대학생일자리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학생일자리사업은 군비 1억 1000만원을 투입해, 1년에 2만 방학기간 동안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사회 경험을 쌓을 수 있다. 특히, 고창군은 2023년부터 취약계층의 비율을 30%로 정해 더욱 다양한 학생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참여한 대학생들은 실제 행정 현장을 경험하며 직무 이해도를 높이고 사회 경험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군무 부서에서도 업무 지원 효과와 책임감 있는 근무 태도에 대해 만족을 나타냈다.

이번 겨울방학에는 총 31명이 접수했고 1차 서류 선발, 2차 해당 사회복지시설 면접으로 총 28명을 공정한 기준으로 선발했다. 최종 선발자들은 사회복지시설, 아동 및 청소년 이용시설 등 18개소에 1월30일까지 총 4주간 근무할 예정이다.

황민안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방학기간 동안 다양한 사회경험을 쌓는 것과 동시에 고창을 바로 알게 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근무기간 동안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이를 발판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박주상 영주수산대표, 부안군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 기탁

부안군은 최근 진서면에서 수산업체 영주수산을 운영하고 있는 박주상 대표가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박주상 대표는 지역 수산업 현장에서 꾸준히 사업을 이어오며 평소에도 장학금 기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해 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기부 역시 고향에 대한 애정과 지역 발전에 대한 바람을 담아 자발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박주상 대표는 "지역에서 사업을 이어오며 많은 도움을 받아 왔다"며 "고향사랑기부가 지역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해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지역 수산업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해오신 박주상 대표의 기부는 지역경제를 이끌어온 분의 참여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며 "소중한 기부금이 지역의 미래를 위한 사업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성실히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지평선 너머 새만금까지 비상한다"

정성주 김제시장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만들겠다"

김제시가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 속에서도 "위기를 절대로 낭비하지 말라"는 격언처럼, 거센 위기의 파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김제의 새로운 미래 지표물을 만들어 가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정성주 김제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2026년 시정 슬로건을 '지평선 너머 새만금까지, 비상하는 김제'로 정하고, 2026년 혼신의 여정을 이어 나갈 '8대 역점 시책'을 제시했다.

역점시책은 △기업과 시민이 함께 활력 넘치는 '민생경제도시' △오늘의 도전으로 내일을 여는 '신산업육성도시' △첨단으로 일구는 농생명의 새로운 지평 '스마트농업도시' △미래의 물결이 이끄는 기회의 땅 새만금, '해양항만도시' △365일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안심케어도시' △모두가 더불어, 촘촘하게 누리는 '교육복지도시' △김제만의 특별함으로 다시 찾고 싶은 '문화관광도시' △시민의 행복이 우선하는 '시민중심도시'이다.

정 시장은 "무엇보다 눈부신 수치가 김제의 저력을 증명한다"면서 "지난 2023년부터 시작된 국가예산 1조 원 시대는 2026년까지 시 최초 4년 연속 돌파하는



7일 김제시에 따르면 정성주 김제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2026년 시정 슬로건을 '지평선 너머 새만금까지, 비상하는 김제'로 정하고, '8대 역점 시책'을 제시했다.

대기록을 달성했으며, 인구 또한 2024년 대비 1,041명이 증가해 민선 최고 인구 증가라는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 자평했다.

시는 새만금 중심도시로서의 입지 강화와 경제기반 다지기에도 가시적인 성과가 난 것으로 보고 2026년은 변화와 성과를 동력 삼아 김제의 미래를 완성해 나갈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정 시장은 "지금의 김제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며, 시민의 목소리는 올바른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과 같다"면서 "어떠한 도전과 난관 앞에서도 초지

일관 흔들림 없는 시정을 이어가기 위해 하루하루 정성과 열정을 다해 헌신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이어 "단번에 날아올라 하늘 높은 곳까지 이른다"는 일비추천(一飛冲天)의 자세로 지평선처럼 넓게 보고 새만금처럼 담대하게 비상하겠다"며 "전북권 4대 도시로 응모하는 김제를 위해 필요한 일은 멈추지 않고 끝까지 추진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김제 해는 밤 두 번째 이야기' 성료

참여자 만족도 ↑

김제시는 청년단체 선암대표 정지환이 주관한 지역 야간 문화행사 '김제, 해는 밤 두 번째 이야기'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실내와 야외로 나누어 다채롭게 운영했으며, 실내에서는 △금주 지역 로컬 브랜드 홍보를 위한 SNS 연계 이벤트 △청년 창업가 참여형 플라마켓 △김제 작두공차와 전통차 시음 △드린 우체통에서 쓰기 프로그램 등이 진행돼 지역 자원과 청년 창업을 자연스럽게 연결했다.

또한, 야외에서는 △천체망원경을 활용한 별자리 관측회 △모닥불 체험과 마시멜로우 구이 체험이 어우

러지며 세대와 연령을 넘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추진됐다.

행사 마지막에는 참여자들과 함께 2026년 카운트다운을 진행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을 마련해, 단순한 행사 참여를 넘어 공동의 경험과 추억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순간으로 마무리하고, 행사 종료 후의 만족도 조사에서도 다수의 참여자가 행사 전반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표하며 향후 행사 재참여 의사를 밝혔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청년이 주도하고 지역 자원이 결합된 문화행사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음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도 청년 주도의 지역 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청년정책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고창 신재효판소리공원, 판소리 산공부참가자 모집

12~14일까지 신청접수

고창군 신재효판소리공원이 겨울방학 기간 판소리 전공자를 대상으로 판소리 산공부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는 판소리 무형유산보유자 또는 전국대회 대통령상 수상 지도자 및 대학 판소리 전공학과 합숙 교육으로 단체별 신청일은 7~10일 정도, 인원은 7~15명 정도이다.

산공부 장소인 신재효판소리공원 내 득음실은 전문 소리꾼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명창과 제자가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다.

흔히 말하기를 소리꾼들에게 겨울과 여름 산공부가 '1년 농사의 절반'에 해당한다고 한다.

전문 소리꾼들은 물론 예비 소리꾼들도 속세의 생활 중에는 소리에 전념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 마음껏 소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판소리계에서는 일정 기간의 여름 산공부가 필수적 과정으로 여겨지고 있다.

참가자에게는 신재효판소리공원 산공부 장소와 숙소를 제공한다. 신청접수는 1월 12일부터 14일까지이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 복분자' 여성 건강 기능성 확인

고창식품산업, 과학적 규명

(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이 최근 연구를 통해 복분자의 여성 건강 기능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여성 난임 증가와 생식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천연물 기반의 안전한 여성 건강 관리 대안과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고창산 복분자는 엘라그산, 안토시아닌 등 항산화 및 호르몬 조절과 관련된 성분이 풍부한 지역 특화 농산물이다. 이번 연구는 복분자 연구의 방향을 여성 건강 영역으로 넓히는 계기가 됐다.

연구원에서 수행한 전임상 연구 결과, 다낭성난소증후군 동물모델에서 복분자 투여군은 체중 증가가 전반적으로 억제되고, 일부 추출물 투여군에서는 난소 비대가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확인됐다.

또한 여성 난임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다낭성난소증후군으로 인해 나타나는 생식호르몬 불균형이 복분자 투여 후 개선되는 경향을 보여, 다낭성난소증후군의 대표적인 병리적 특징이 완화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복분자의 수확 시기(완숙·미숙)와 추출 방식에 따라 효과 차이가 나타나, 향후 복분자의 기능성 원료 표준화와 품질 관리, 제품 개발 전략 수립을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창군과 연구원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복분자를 여성 생식·내분비 건강 중심의 기능성 농산물로 육성하고, 향후 기능성 식품 개발과 기능성 인증 연계, 지역 농산물 고부가가치화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 검산동, 2026년 노인 일자리 시작·안전교육 실시

김제시 검산동 행정복지센터는 7일, 2026년 노인일자리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며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34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익활동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중심으로 기본 안전수칙, 활동 시 유의사항,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 등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송영에 검산동장은 "노인일자리사업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사회참여를 동시에 지원하는 매우 의미있는 사업"이라며,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어르신께서 안심하고 활동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현장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11개월간 관내 환경 정비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제=은봉기 기자

고창군-엠즈씨드(주), 지역 상생 협력

전국 146개 폴바셋 매장에 고향 농산물 디저트 런칭

고창군이 7일 군청에서 엠즈씨드(주) (대표 권익범)와 고향 농산물 유통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역 상생을 위한 협력 모델 구축에 나섰다.

고창군과 엠즈씨드는 지역 대표 농산물인 고구마, 팥, 복분자 등을 활용한 디저트 메뉴를 개발한다.

이후 엠즈씨드가 운영하는 스페셜티 커피 전문 브랜드 '폴 바셋(Paul

Bassett)'의 전국 146개 매장과 공동 마케팅을 통해 지역 농산물의 맛과 가치를 전국에 알리고, 안정적인 판로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엠즈씨드(주)는 매일홀딩스(매일유업 지주사)의 자회사로, 카페 폴바셋과 데이지고기 사브샤브 전문점 '사브샤브 상하'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가을에는 고창 선운사에 '폴바셋 고향선운 사점'을 오픈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고창군과 엠즈씨드(주)는 △고창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지원 및 원물 구매 △고창 농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

△공동마케팅 △기타 지역 상생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향후 폴바셋에서는 고향 팥콩 카페라떼, 고향 고구마 라떼, 고향 복분자 에이드, 고향 고구마 치즈 케이크 등 고향 농산물을 활용한 신제품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우수 농특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고,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전반의 균형 발전과 지역-기업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참프레, 부안군에 장학금 2천만원 기탁

지속적 나눔 실천 이어와 누적기부금 1억 5천만원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은 (주)참프레(대표 김재윤)가 지난해 12월 30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2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으로 참프레가 재단에 기부한 장학금 누적액은 총 1억 5000만원에 이른다.

참프레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기업의 중요한 가치로 삼고 꾸준한 장학금 기탁을 통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 왔다.

특히 단발성 후원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오며 지역 인재 양성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재윤 대표는 "지역에서 성장한 기업으로서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을 응원하는 일은 당연한 책무라

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참프레는 장학금 기탁을 비롯해 지역 농가와의 협력, 취약계층 지원, 지역사회 나눔 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으며 지역 기반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상생 구조를 만들어 가는 데 꾸준히 힘쓰고 있다.

/부안=신상수 기자

완주군 '삼례 관광·이서 교통' 도약청사진

유희태 완주군수, 읍·면 연초방문 삼례 물고기철길 체류 관광 육성 이서 하이패스IC 피지컬AI 발판

유희태 완주군수가 7일 삼례읍과 이서면을 차례로 방문해 2026년 군정 운영 방향과 지역별 주요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연초 방문 일정을 진행했다.

이날 삼례읍과 이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 연초방문은 각 읍·면 기관·사회단체장과 주민 대표들이 참석해 군정 설명과 대화가 이어졌다.

삼례읍에서는 만경강 물고기철길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한 명품관광지 조성 방안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물고기철길은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의 하나로, 삼례읍 일원에 '물고기' 테마의 야간 경관과 스토리텔링을 접목해 관광객 체류를 유도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군은 삼례문화예술촌과 비비정 일원을 연계한 관광 동선을 구축하고, 예술인마을·삼색마을을 조성사업과 연계해 삼례를 '스쳐 지나가는 곳'이 아닌 '머무는 관광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유희태 완주군수가 7일 삼례읍과 이서면을 차례로 방문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연초 방문 일정을 진행했다. <사진=완주군>

함께 주차 문제와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차장 확충과 환경 관리 대책도 병행 추진한다.

이서면에서는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하이패스IC 설치 성과가 핵심 현안으로 다뤄졌다. 해당 하이패스IC는 완주군과 김제시가 협력해 이뤄낸 첫 상생 모델로, 이서면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크게 개선하는 것은 물론 지역 성장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하이패스IC 설치는 이서면이 '피지컬 AI(Physical AI) 선도지역'으로

선정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된 사업으로, 향후 첨단 연구·산업 인프라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군은 교통 접근성 개선을 토대로 혁신도시와 인근 지역의 연계를 강화하고, 중·장기 성장 동력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삼례는 물고기철길을 중심으로 관광과 지역경제를 살리고, 이서는 하이패스IC를 발판으로 교통과 미래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으로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군의회, 농어촌공 전주완주임실지사와 간담

농업용수 공급·노후시설 정비 기후변화 대응 개선 등 논의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은 6일, 군의회 의장실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김세영 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완주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업용수 안정적 공급 △노후 수리시설 정비 △농업기반시설 확충 △기후변화 대응 농업 인프라 개선 △농촌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등 다양한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김세영 지사장은 "군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완주군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유의식 의장은 "농업은 완주군의 근간이자 농촌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분야"라며 "농어촌공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기반시설은 농업인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군의회와 농어촌공사가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 보절면 신파제 일원 독수리 100여 마리 2년째 월동

남원시 보절면에 천연기념물로 알려진 독수리 100여 마리가 2년 연속으로 겨울을 나기 위해 찾아와 장관을 이루고 있다.

지난 2024년부터 12월에서 2026년 1월 사이 보절면 신파리 신파제 저수지 주변과 덕과면 신양리 미꾸리양식장 주변 농경지 일원에서 독수리 떼가 목격되고 있다.

몽골에서 서식하는 독수리들은 매년 11월경 월동을 위해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를 찾고, 3월~4월 중 다시 몽골로 돌아가는데, 남원 보절면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0여 마리 무리가 목격, 남원이 독수리들의 새로운 월동 최적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보절면 신파제 저수지는 탁 트인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 독수리들이 천적을 감시하며 휴식하기에 최적지로, 물고기를 주로 먹는 습성으로 저수지와 미꾸리 양식장 근처에서 주로 발견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원시는 독수리떼 출현을 계기로 보절면 일대 환경 보존과 자연 공존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최영일 순창군수, 4년 연속 새해 전 마을 방문 소통

320개 전 마을 회관·경로당 순회 생활 불편 점검·기초 인프라 개선

최영일 순창군수가 7일부터 320개 전 마을 방문에 돌입하며 민선 8기 4년 연속 새해 첫 발걸음을 군민과 함께 하고 있다.

순창군은 '오메! 왔소?, 아! 반갑네, 그! 고마워!'라는 정감 있는 인사를 주제로 한 '오메! 아! 그! 대화'를 통해 관내 320개 전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방문하여 지난해 군민들이 건의한 생활 불편 사항을 직접 점검하고, 군민 행복을 높이기 위한 군정 방향을 함께 모색할 방침이다.

1월 7일부터 2월 중순까지 약 20여 일간 진행되는 이번 일정은 읍면별 일정을 보완해 각 지역에 머무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기획했다.

군에 따르면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변화된 제도와 군정 주요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지난해 각 마을에서 도출



최영일 순창군수가 7일부터 320개 전 마을 방문에 돌입하며 민선 8기 4년 연속 새해 첫 발걸음을 군민과 함께하고 있다. <사진=순창군>

되었던 총 802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상황도 함께 공유할 계획이다.

특히 교통, 도로, 가스, 상·하수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초 인프라 분야에 대해서는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4년 연속 실시하

는 이번 마을방문이 형식적인 일정이 아닌, 정감 있고 친근한 소통의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며, "군민이 실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행정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설경야간실내 잇는 겨울 관광 경쟁력 강화

설경야간 미디어정원 '낮밤 조화' 미술관전시관 겨울방학 체험 확대

남원시는 겨울철에도 자연경관과 실내 야간 관광 콘텐츠를 연계해 겨울 관광지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겨울철 남원에서는 바래봉과 지리산 남원 구간 일대의 설경을 중심으로 계절 특유의 자연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눈꽃 능선과 실산 풍경은 겨울에만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등산객과 자연 경관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어지고 있다.

자연경관과 함께 야간 관광과 실내 문화시설도 겨울 관광의 주요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달빛정원 피오리움은 빛과 미디어를 결합한 야간 연출로 겨울밤 관광 코스로 운영되고 있으며,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은 실내

전시 공간을 통해 겨울철에도 쾌적한 문화 관람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겨울방학 기간을 맞아 실내 체험형 전시도 운영된다. 지리산 허브밸리에서는 식물과 향기를 주제로 한 겨울방학 특별기획전 '날개와 향기, 겨울 속 봄을 피우다'가 열리고,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에서는 '백두대간 생태오션전 시즌 2' 전시가 마련돼 가족 단위 방문객의 이용이 가능하다. 남원아트센터에서도 기획 전시 '다 지나간다' 끝이 아니라 흐름으로'가 진행돼 겨울철 문화 관광 선택지를 넓히고 있다.

또한 운봉 바래봉 일원에서는 2026년 1월 3일부터 2월 18일까지 눈꽃축제를 열고 있다. 달빛정원 피오리움은 먹거리 장터와 썰매장, 눈놀이 공간 등이 운영돼 겨울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제공한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담양군과 사회단체 상호 기부 상생 협력 확대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민간 주도 양 지역 단체 각 500만원 기탁

순창군은 최근 담양군과 지역 상생 발전 및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단체 간 상호 기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식은 민간 사회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양 지역 간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의 계기를 마련했다.

행사는 양 군이 서로의 지역을 교차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순창군에서는 △이장협의회 △주민자치협의회 △체육회 △여성단체협의회 △새마을운동지원회 △자율방범연합회 등 7개 사회단체가 순창군정을 방문해 총 5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에 화답해, 담양군에서도 △새마을회 △주민자치연합회 △체육회 △의용소방대연합회 △자율방범연합회 등 5개 사회단체가 순창군정을 찾아 500만 원을 기탁하며 상호 기부를 이어갔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상호 기부금의 교류와 협력의 계기를 마련했다. 행사는 양 군이 서로의 지역을 교차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순창군에서는 △이장협의회 △주민자치협의회 △체육회 △여성단체협의회 △새마을운동지원회 △자율방범연합회 △대한적십자봉사회 등 7개 사회단체가 담양군정을 방문해 총 5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스마트·화상 회의 시스템 행정 혁신 '톡톡'

재난시실시간영상소통체계 구축 경로당소통 확대·행정투명성 제고

남원시가 디지털 행정 혁신의 일환으로 도입한 스마트회의와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 2년을 넘어서며 행정과 재난 대응 혁신을 이뤄가고 있다.

시는 2022년 12월 재난상황실에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해 대포·집중호우·산불·구제역 등 재난 발생 시 본청과 23개 읍면동 간 실시간 영상 소통 체계를 마련하고 현장 상황을 실시간

공유했다. 현장 영상 공유를 통해 신속한 판단과 인력·장비 투입이 가능해지면서 재난 대응의 골든타임을 단축하는 성과를 냈다.

또 2025년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25년 12월에 본청과 23개 읍면동 그리고 관내 전체 496개 경로당을 잇는 실시간 화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해 읍면동 지역 주민들과 정보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속한 소통 창구와 여가·복지 프로그램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2023년부터 전 부서에 태블릿 PC 80대를 보급해 종이 없는 스마트 회의 환경을 조성하고, 공용 서버를 통한 실시간 자료 공유와 기록·검색 기능을 통해 업무 효율을 높였다.

같은 해 10월부터는 청년방송시스템을 통해 간부회의를 직원들에게 생중계해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실무 직원들이 본인의 자리에서 회의 내용을 즉각 파악해 피드백과 실행이 가능하게 되는 등 열린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농식품바우처 지원 청년 가구까지 확대

생계급여수급가구 대상 신청 접수 전자카드 월 최대 10만원 지원

완주군이 취약계층의 식품접근성 강화와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2026년 농식품바우처 사업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은 생계급여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신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기존 임신부·영유아·아

동 포함 가구에 더해 청년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돼 보다 다양한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세부적으로는 임신부·영유아·아동·청년(만 34세 이하)이 포함된 생계급여수급 가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로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월 4만 원, 4인 가구 월 10만 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바우처는 국산 채소·과일·육류·잡곡·두부류·임산물 등 신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카드 형태로 제공

되며, 사용처는 로컬푸드 직매장, 농협 하나마트 등 지정된 판매처이다.

2026년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은 올해 12월 11일까지로 온라인(foodvoucher.kr), ARS(1551-0857)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 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최옥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농식품 바우처 사업 확대로 더 많은 군민이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 익명 기부자 2년째 '희망나눔' 동참 기부

지난해 이어 500만원 성금 전달

남원시는 지난 6일 희망2026 나눔 캠페인 기간 중 익명의 기부자가 5백만 원의 성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남원시가 고향인 다른 지역 거주자가 전달한 것으로, 기부자는 개인 신상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익명 기부를 요청했다. 해당 기부자는 고향인 남원시 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기부는 일회성 나눔이 아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진 실천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조용하지만 꾸준한 기부를 통해 지역 사회와의 인연을 이어가고, 나눔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실현하고 있다는 평가다.

남원시는 기부자의 뜻을 존중해 성금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하고, 꼭 필요한 곳에 전달할 계획이다. 기부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원=정하복 기자

유은영(썬)디자인그룹유영 대표 순창군 고향사랑 500만원 기탁



순창군은 7일 (주)디자인그룹 유영 유은영 대표가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유은영 대표는 디자인 및 실내건축 전문 기업인 (주)디자인그룹 유영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간·시각디자인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바탕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사회공헌 활동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나눔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유은영 대표는 "이제는 고향처럼 느껴지는 순창군이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에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장수군, 전국사과생산자협회 동계 회원대회 성료

장수군은 '2026년 전국사과생산자협회 동계 회원대회'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한누리리당 산디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동계 회원대회는 (사)전국사과생산자협회 장수지부가 주최하고 장수사과원예협동조합이 주관했으며, 최훈식 군수를 비롯해 전국 33개 지부 사과 농업인과 관계자 등 약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과 교류를 겸한 대규모 행사로 진행됐다.

전국 단위 사과 농업인이 한자리에 모인 이번 대회는 최신 재배기술을 공유하고 산업 현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국내 사과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식 2축·다축 고밀식 재배기술 △세형 방추형 수형 관리 △2026년 병해충 방제 전략 등 고품질·다수확 실현을 위한 이론 교육과 현장 실습이 병행됐다.

특히 일본 아오모리사과협회 명장 나라타 츠카요시를 비롯한 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선진 재배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2026년 상반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진안군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2026년 상반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피해방지단은 총 40명으로 구성돼 11개 읍·면 전 지역에서 운영되며, 멧돼지, 고라니 등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대상으로 한 포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췄다.

군은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지난 6일에는 경찰서와 야생동물관리협회가 합동으로 피해방지단을 대상으로 총기 안전사고 예방, 유해야생동물 포획 업무 지침, 안전 수칙 준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안전하고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진안군은 지난해에도 피해방지단 운영을 통해 멧돼지 550여 마리, 고라니 2,600여 마리를 포획하며 농작물 피해 감과 ASF 확산 방지에 기여 해왔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 민원실 친절 교육 실시 공감·소통 역량 강화

장수군은 지난 6일 민원실에서 민원 안내에 애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친절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친절 교육은 민원 응대 과정에서 갖춰야 할 기본 자세와 친절한 언어 사용법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실제 민원 사례를 공유해 민원인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소통하는 응대 요령을 기르는 데 중점을 뒀다.

이와 함께 군에서는 친절 교육을 계기로 민원 처리 절차와 안내 방식 전환을 점검하며, 군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 제공과 신속한 민원 처리 체계 구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민원 현장에서의 작은 변화가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군민 만족도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수군은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민원 환경 개선과 직원 대상 친절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직자의 민원 응대 과정에서 존중과 배려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등 민원 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 고향사랑기부금, 10억 돌파

25년 12월 기준 모금 누적액 총 13억 8천여만원 역대 최고

무주군이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 10억 원 첫 돌파 기록을 세웠다. 2025년 12월 말 기준 누적액은 총 13억 8천여 만 원으로 역대 최고 실적이다.

군에 따르면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모금액은 꾸준히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전년 대비 93% 이상 늘어나는 등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기부 참여 분위기도 크게 확산돼 참여 건수는 전 년 대비 5,487건에서 12,194건으로 인원수도 5,328명에서 11,853명으로 큰 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성과는 무주군의 고향사랑기부제 인식 확산과 기부자 만족도를 고려한 답례품 확대 등 활성화 노력이 크게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군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영동세계국악엑스포를 비롯해 울산에서 개최된 제3회 고향사랑의날 박람회 등 전국 각지에서 열린 행사장을 찾아다니며 7차례 홍보전을



펼쳤다. 이를 통해 무주군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혜택을 알리고, 무주군 대표 특산물과 관광상품 등으로 구성된 답례품을 소개하며 기부 동참을 유도했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군, 강영구 관광치즈과장 대통령 표창

2025년 정부 우수공무원 선발 사계절 축제 성공 견인

임실군의 천만관광을 견인하는 사계절 축제의 성공 주역으로 불리는 강영구 관광치즈과장(사진)이 이재명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군은 강영구 과장이 33년간 지방행정 발전과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5년 정부 우수공무원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강 과장은 지난 1992년 6월 공직에 입문한 이후 현재까지 33여 년간 다양한 지방행정 분야에서 근무하며 투철한 사명감과 소명 의식으로 군정 발전에 헌신해 왔다.

지난 2025년에는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상생 투자협약 사업'을 총괄해 총



135억 원 규모의 사업을 유치했으며, 체류형 복합문화공간과 체험·휴양·놀이·숙박이 결합된 관광 인프라 구축을 본격 추진하는 등 지역 관광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에 선정된 이후, 사업 추진 총괄 및 실행 단계 관리 역할을 맡아 지역 특화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 인프라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관광개발 유망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무엇보다 계절별 축제를 총괄 기획·운영해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열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해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접수

2월말 첫 지급 예정 지역경제 순순환 효과 기대

장수군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접수를 지난 5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올해부터 2027년까지 2년간 개인당 월 15만원씩 장수사랑상품권 카드형으로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 중인 군민이며 거주 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군인의 경우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신청 가능하지만, 병역의무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성년자나 피후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 서류가 필요하다.

신청은 온라인 접수는 불가하며 본인 신분증과 장수사랑상품권 카드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해야 한다.

거주 기간에 따라 제출 서류는 달라진다. 기존거주자(25.10.19 이전부터 거주 중인 자)는 신분증과 신청서 등 기본서류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규거주자(25.10.20 이후 전입자)는 기본서류와 함께 매매·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 증명 사진 등 전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미성년자나 피후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 서류가 필요하다.

신청은 온라인 접수는 불가하며 본인 신분증과 장수사랑상품권 카드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온라인 접수는 불가하며 본인 신분증과 장수사랑상품권 카드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해야 한다.

거주 기간에 따라 제출 서류는 달라진다. 기존거주자(25.10.19 이전부터 거주 중인 자)는 신분증과 신청서 등 기본서류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규거주자(25.10.20 이후 전입자)는 기본서류와 함께 매매·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 증명 사진 등 전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미성년자나 피후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 서류가 필요하다.

신청에 필요한 세부 서류와 사례별 지급 대상자 판단 기준 등은 장수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2025 임실 방문의 해' 918만명 찾아..관광 역사새 지평

7년간 도내 방문객 증가율 1위

임실군 방문객 수는 지난 2022년 809만명으로 첫 8백만명을 돌파한 이후, 지난 2024년 888만명을 거쳐 지난해 임실 방문의 해 추진과 함께 900만명을 넘어서는 기염을 토했다.

이 같은 연간 방문객 수는 인구 수가 비슷한 인근 동부권 5개 지자체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로 기록됐다.

군은 2025년을 '임실 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연간 방문객 1천만명 달성을 목표로 사계절 축제와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집중 육성해왔다. 그 결과, 2025년 한 해 동안 총 918만명의 방문객을 유치하며 목표에 근접한 성과를 거뒀다.

군은 이러한 성과의 배경으로 △심민 군수가 지난 12년간 일관되고, 특실

있게 추진해 온 섬진강 르네상스 실현을 기반으로 한 균형 정책 △지난 2022년 개통된 육정호 봉어섬 출렁다리 관광 명소 등 전국적 대박 관광지 부상 △육정호 뱃놀이터와 임실N페스티벌, 아쿠아페스티벌, 임실N치즈축제, 산타축제 등 사계절 축제의 성공 △오수의견 관광지 등 반려동물 관광산업 추진 등을 꼽고 있다.

군은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2026년 5월, 군 최초로 개최하는 '장미꽃과 함께하는 임실N치즈축제'를 비롯해 사계절 축제를 더욱 체계적으로 준비해 연간 방문객 천만명을 넘어 매년 천만 관광객이 찾는 지속 가능한 관광 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이러한 성과의 배경으로 △심민 군수가 지난 12년간 일관되고, 특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남성난임 치료비 지원..새롭게 시행

균형있는 난임지원체계구축

진안군이 여성 위주로 추진되던 난임 지원 정책의 범위를 확대해 남성 난임 치료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지원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2026년부터 저출산 극복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을 신규로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난임을 부부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여성 중심으로 집중됐던 난임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남성 난임에 대한 치료 부담을 완화하고 부부가 함께 치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난임 부부로,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건소로부터 확인받은 경우다. 이 가운데 의료기관에서 남성 난임(무정자증)을 진단받고 정자 채취를 포함한 난임 시술이 가능하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남성이 대상에 해당 된다.

지원되는 시술은 고환조직 정자 추출술과 정계정맥류 절제술로, 1인 최대 3회까지 지원된다. 시술 100인부담금의 90%를 회당 최대 1만 원까지 지원하며, 세부 지원 기준과 금액은 추후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군, 2026년도 분야별 주요 업무 계획 공유

'무주형 기본사회 실현' 박차

무주군이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공유하며 '무주형 기본사회 실현'과 생활 인구 300만 시대 도약을 위한 균형 운영 방향 정립에 나섰다.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보고회는 지난 7일 관광진흥과를 시작으로 오는 9일까지 이어질 예정으로,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총 21개 부서, 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2025년 분야별 성과와 개선해야 할 점 등을 공유하고 올해 추진할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무주군은 '무주형 기본사회 구현'에 더욱 속도를 내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확충과 군민 기본권 보장 확대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반디누리 생태체험공원, △구천동 33경 생태 탐방로, △친환경 산악관광단지 조성 등 관광자원 확충과 △무주산골영화제, △무주반딧불 축제, △야간관광도시 진흥 사업을 포괄하는 관광콘텐츠 육성 등 생활 인구 증대를 위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K-스포츠 중심도시 무주로의 도약, △국가 교통망 확충,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업체계 강화,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 등 주요 과제에 대해 소통하며 정책 실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무주=최의호 기자



진안군은 7일 군수실에서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이사장 박성자)과 지역 청소년의 성장 지원과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진안군,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진안군은 7일 군수실에서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과 지역 청소년의 성장 지원과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농어촌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교육·문화 체험을 위한 청소년 육성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식에는 전춘성 진안군수와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채명숙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국제 청소년 교류 및 탐방활동 △청소년 진로 탐색 및 역량 강화 지원 △인적·물적 자원 연계 △청소년 중심 농어촌 육성사업 발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게 된다.

진안군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과 연계해 올해 협력사업을 구체화하고, 2027년부터는 본격적인 공동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군, 소득작목 분야 신기술 시범사업 본격 추진

무주군이 '소득작목 분야 신기술 시범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는 기후변화와 농촌 고령화 등에 적

대응하고 무주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현장 중심의 신기술 보급과 실증 확대에 주력하게 된다.

무주군은 올해 총사업비 5억 2천여 만 원(국비·도비 포함)을 투입할 예정으로, 과수·채소·스마트농업·화훼 등 총 4개 부문에서 8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사과 병해충 예방 방제 시범, △복숭아 세균병 방제 시범, △과수 안전 결실 관리 시범, △

사과 정점목 폐기물 처리 시범, △우리 품종 화훼 육성 시범 등이 있다.

또한 △스프링클러 여름 배추 안정생산 체계구축, △채소 일사·강우 센서 기반 스마트 관수 시스템 시범, △고령지 여름철 채소 안정생산 시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 확산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사업 지원 대상은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단체, 영농조합법인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또는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소득작목팀(063-320-2871~3)으로 문의하면 된다.

/무주=최의호 기자



진안군 용담면 주민자치회, '마을복지' 성금 기부

진안군 용담면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경철)는 지난 6일 용담면 마을복지에 성금을 기부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정을 전했다. 이번 기탁은 용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026년 새해를 맞아 해맞이 행사를 진행하고 모금한 성금 935,000원으로 진행했다. 용담면은 이번 성금이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에 활용돼 마을복지 사업을 거점으로 용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사협)의 특화사업과 나눔 활동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을복지 사업은 용담면 지사협의 복지허브화 사업으로 정기 및 일시 후원자 30여명이 함께하여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기부 참여를 통해 조성된 기금을 기반으로 저소득층 가정 말발찬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진안=전길번 기자



장수군 장계면, 익명 기부자 이웃돕기 성금 기탁

장수군 장계면은 지난 5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기부자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현금이 담긴 봉투 형태로 전달됐으며,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부자는 평소에도 주변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먼저 손을 내미는 등 말보다 실천으로 나눔의 가치를 이어나온 인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주변의 시선이나 감사 인사를 사양하고 조용히 선행을 이어가는 기부자의 꾸준한 나눔은 지역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전하며, 이웃 사랑 문화 확산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러한 따뜻한 실천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반에 온기를 더하고 있다.

기부자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지만,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여건이 되는 한 나눔을 계속하고 싶다"고 전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주)인익스, 완주군에 백미 10kg 100포 기탁

"이웃들에게도움되고 싶어"

(주)인익스(대표이사 문종배)가 지난 6일 완주군에 백미 10kg 100포를 전달했다.

(주)인익스는 2023년 12월 처음 백미를 기탁한 이후 2025년 1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후원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꾸준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주)인익스 관계자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매년 후원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주)인익스의 지속적인 관심과 나눔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기탁받은 백미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해 따뜻한 겨울나기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중택 사회복지과장은 "민간 기업의 꾸준한 나눔 문화가 지역사회를 위한 꾸준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에 더욱 소중한 기부에 감사드리며, 관내 취약계층 가구에 신속하게 전달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주)인익스(대표이사 문종배)가 지난 6일 완주군에 백미 10kg 100포를 전달했다



(주)세인종합건설 최태용 대표, 순창군에 500만원 기탁

순창군은 7일 (주)세인종합건설 최태용 대표가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전주시에 거주 토목 및 건축공사 전문 건설기업인 (주)세인종합건설을 운영중인 최태용 대표는 전주중앙라이온스클럽 회장 등 다양한 사회단체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며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최태용 대표는 "고향 순창군이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에 동참하게 됐다"며, "기부금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소중하게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전북 경제계 거목' 故 이선홍 회장 별세

전주상공회의소 제22,23대 회장 역임 등

전북지역 경제계 별 故 이선홍 합동건설(주) 회장이 향년 79세 나이로 영면에 들었다.

故 이 회장은 경제계에서 오랜 기간 리더십을 발휘하며 전북 산업 발전과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전략을 주도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故인은 남원 출신으로 전주상공

회의소 제22,23대 회장을 역임했으며,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제23,24대 회장, 대한적십자사 제33대 전북지사장을 역임한 전북경제계의 거목이다.

故 이 회장은 특히 2017년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재임 당시 전북지역 상공인의 전담인 상의회관 건물을 완공했다.

故 이 회장은 "지역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

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중심으로 한 혁신적 인프라가 필수"라며 상의회관 건물 프로젝트를 직접 감독했다.

이에 따라 상의 회관을 찾으면 업종과 규모를 불문하고 자금지원에 서부터 상담, 교육에 이르기까지 기업경영과 관련된 업무를 볼 수 있게 했다.

고인의 업적은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과 상생 협력을 위한

허브로서 건물 완공이 경제계 큰 전환점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 경제계 각계는 故 이선홍 회장의 별세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다.

故 이선홍 회장 빈소는 전북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운구는 2026.01.09. 전주승화원을 떠나 남원산동면 선영에 잠든다.

/김영태 기자



대한불교 조계종 선운사, 새해 맞아 이웃들에 쌀 전달

대한불교 조계종 선운사(주지 경우스님)가 지난 6일 공음면 아산면 주민행복센터에 각각 사랑의 쌀 1000kg을 기탁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나눔은 지역 내 경로당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탁된 쌀은 경로당과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경우 주지스님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임실군 오수면 이장협의회(회장 이정춘)가 오수면사무소를 방문해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300만원을 기탁했다고 7일 밝혔다

임실 오수면 이장협의회, 이웃돕기 300만원 성금 기탁

임실군 오수면 이장협의회(회장 이정춘)가 오수면사무소를 방문해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300만원을 기탁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기탁은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역사회와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추진됐으며, 이장협의회가 여름철 환경정비 활동 일환으로 진행한 풀베기 사업 수익을 모아 마련했다.

기탁된 성금은 전라북도사회복

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오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며, 특히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 저소득 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활용될 계획이다.

이정춘 회장은 "지역 내 취약계층이 보다 따뜻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군산시 수송동(동장 곽은하)은 수송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미아)가 이웃돕기 성금 300만 원을 기탁하며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7일 밝혔다

군산 수송동 주민자치위원회, 성금 350만원 기탁

군산시 수송동(동장 곽은하)은 수송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미아)가 이웃돕기 성금 300만 원을 기탁하며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주민자치위원들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미아 주민자치위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 이웃들에게 따뜻

한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곽은하 수송동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앞장서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며 "기탁 성금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될 수 있도록 소중히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 [부음]

이선홍 씨 별세

(합동건설(주) 회장, 前)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제23,24대 회장, 前) 전주상공회의소 제22,23대 회장, 前)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제33대 회장)

향영순 씨 남편상, 이정미 씨 부친상, 김종호 씨 장인상
빈소: 전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입관: 1월 7일
발인: 1월 9일
장지: 전주승화원-남원산동면선영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 방지 4가지방법
수도계량기가 얼었다면? 수도계량기가 얼었다면 드라이기로 약하게(50도 미만) 설정후 녹여 주는 방법이 좋아요
1. 수도계량기 보호통 내 보온재를 잘넣고 뚜껑을 밀폐
2. 옥외 화장실, 외부에 노출된 배관에 보온재를 꼼꼼히 묶기
3. 장시간 외출시, 수돗물을 매우 약하게 틀기
4. 동파방지열선 구매해서 활용하는것도 예방에 도움

〈一事一言〉



내란세력은 누구이며 어디까지인가(1)

전우용
역사학자

1945년 해방을 맞았을 때, 민주 독립국가 건설이 민족의 지상과 제라는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일제로부터 '조선귀족' 작위를 받은 극소수만이 시대적 오적인 왕정복고를 꿈꿨을 뿐이다. 새 국가 건설과정에서 '친일 민족반역자'들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일제에 부여하여 동족을 짓밟은 민족반역자들을 처단, 처벌하지 않고서는 민주독립국가 건설의 전제인 '민족정기(民族正氣)'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이 당대의 보편적 대의(大義)였다. 그런데 '민족반역자'는 누구이며 '민족반역행위'란 무엇인가의 문제를 둘러싸고 의견이 여러 갈래로 나뉘었다.

"국민학교 때,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랑 놀다가 '우리말' 썼다는 이유로 담임 선생에게 끌려가 두 뺨이 터지도록 호되게 맞았다. 해방이 된지는 잘 몰랐으나 선생 안 보게 됐다는 것만으로 기뻐했다. 그러나 개학 후 학교에 가니 그 선생이 그대로 있었다." 꽤 오래 전 영화감독 임권택이 모 잡지와 인터뷰하면서 술회한 '해방의 기억'이다. 당대의 문자 보급률이나 미디어 환경에서, 보통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었던 '민족반역자'는 조선귀족이나 총독부 직입관, 저명한 문필가나 예술가들이 아니라 말단 순사, 면서기, 구장(區長), 경방단장(警防團長), 학교 교사, 교회 목사 등 그저 '유지(有志) 행세하는 이웃'들이었다.

정용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고, 집안에 들어와 낯그릇 나부랭이를 빼앗으며, 우리말 쓰다가 발각된 아이들을 모질게 때리고, 일본 신도익식 시간에 일부러 지각했다는 이유로 신도를 고발한 자들이 '민족반역자'의 실례였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런 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고 '경쟁의 시간'을 주는 게 '정의'였다. 그러나 이 '정의'는 실현가능한 영역 밖에 있었다. 무엇보다도 '민족반역자'로 몰린 당사자들과 그 가족들, 친척·친지들의 반발이 거셌다. 그들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먹고 살기 위해' 한 일이 어떻게 '민족반역죄'가 될 수 있는냐고 항변했다. 민족반역행위의 범위를 확장하는만큼, '민주독립국가' 건설의 주체는 줄어들고 척결해야 하는 대상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1947년 3월 13일,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부일협력자, 민족반역자, 전범, 간상배에 대한 특별조례법률」 초안을 상정했다. 이 초안은 조선총독부의 말단 행정관리도 민족반역자로 규정했으니, 입법의원 중에도 이에 해당하는 자가 적지 않았다. '해당자'들은 따로 민족반역자의 범위를 조 축소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으로 취임관 직위에 오른 자는 수십 명에 불과했다.

민족반역자의 범위를 둘러싼 입법의원 내의 논란은 7월 2일의 '재수정안'으로 귀결되었다. 재수정안은 민족반역자의 범위를 주

임관(현재의 사무관급) 이상의 관리, 판임관 이상(전원의) 군인과 군속, 고등계(독립운동가 체포 심문 관련 업무 담당)에 재직할 경찰로 한정했다. 그러나 총독부 조선인 관리들에게 '현직 유지'를 지시했던 미군정청은 이 특별조례법률을 인준하지 않았다.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된 제헌헌법은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부칙에 명기했다. 8월 5일, 제헌국회는 '반민족행위 처벌 특별법 기조위원회'를 구성했고, 위원회는 미군정기의 특별조례법률에 기초한 법안을 만들어 정부 수립 다음 날인 8월 16일 국회에 상정했다.

특별법은 ①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세습한 자, ② 중추원 부의장, 고문 또는 참의 되었던 자, ③ 취임관 이상의 관리 되었던 자, ④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 ⑤ 독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 단체의 수뇌간부로 활동했던 자, ⑥ 경찰의 관리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⑦ 비행기, 병기 또는 탄약등 군수공업을 책임경영한 자, ⑧ 도, 부의 자문 또는 결의기관의 의원이 되었던 자로서 일제가 부여한 그 반민족적 죄적이 현저한 자, ⑨ 관공리되었던 자로서 그 직위를 악용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악질적 죄적이 현저한 자, ⑩ 일본국책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각 단체본부의 수뇌간

부로서 악질적인 지도적 행동을 한 자,

⑪ 종교, 사회, 문화, 경제 기타 각 부문에 있어서 민족적인 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본침략주의와 그 시책을 수행하는데 협력하기 위하여 악질적인 반민족적 언론, 저작과 기타 방법으로써 지도한 자, ⑫ 개인으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일제에 아부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들을 '민족반역자'로 규정했다.

이들 중 ①~③까지는 이론의 여지가 없었지만, ④부터는 정성적 판단이 필요했다. 수사와 기소의 주체로 조사위원과 특별검찰부, 특별재판부로 구성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민족반역자의 범위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절대다수의 구 총독부 하급 관리들, 특히 경찰들은 과거 행적을 반성하는 쪽보다는 민족반역자의 정체성을 내면화하는 쪽을 택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민족반역자로 처벌받을 경찰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대중적 정의감'이 원하는 바를 잘 알았던 경찰들에게 반민특위 와해는 '생존의 문제'였다. 결국 '대중적 정의감'은 단 1%도 충족되지 못했다.〈계속〉

본 칼럼은 시민언론 만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과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반도체 균형 배치, 전북 결집이 만들 시험대

삼성전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을 둘러싼 논의가 국가적 현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전북 정치권이 결집된 행동에 나섰다. 안호영·윤준병 두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산하에 '삼성전자 전북 이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동위원장 체제로 총력 대응을 선언한 것이다.

무려 360조 원 규모의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를 수도권에만 집중시키는 기존 산업 구조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전북을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런 특별위원회 출범은 단순한 지역 민원 차원을 넘어선다. 수도권 과밀과 전력·용수 부족, 지역 불균형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전략 차원의 전환 요구이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와 여권 내부에서도 반도체 산업의 지방 이전 필요성이 공개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도당 차원의 공식 기구 설치의 전북을 '가장 준비된 이전 후보지'로 각인시키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평가된다.

전북은 이미 재생에너지 생산량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RE100 기반의 친환경 산업 입지로 손색이 없다. 반도체 산업의 최대 약점으로 지적되는 전력 공급 문제에서 전북은 오히려 경쟁력을 갖춘 지역이다.

여기에 세만금과 연계한 대규모 산업 부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용수 확보 여건까지 고려하면 삼성전자 이전 논의에서 전북은 더 이상 주변부가 아니다. 몇 개의 팜만 이전되더라도 전북 경제 지형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더 나아가 이번 특별위원회 출범은 전북이 더 이상 '기회를 기다리는 지역'이 아니라 국가 전략산업을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요구하는 주체로 나서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그동안 전북은 국가 기간산업 유치 경쟁에서 번번이 명분과 당위만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에너지·환경·임지 여건이라는 구체적인 경쟁력과 정치권의 조직적 행동, 도민 참여라는 실질적 동력을 함께 갖췄다. 수도권에 쏠린 산업 논리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국가 경쟁력 또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전북의 요구는 지역이기주의를 넘어 대한민국 산업 구조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현실적 대안이다.

특별위원회는 전북도민과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범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대통령실에 직접 전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는 정치권 내부 논의에 머물지 않고 도민의 집단적 의지를 국가 권력의 최종 결정권까지 밀어 올리겠다는 선언이다. 전북 정치권이 하나의 목표로 힘을 모으는 모습은, 오랜 시간 소외와 낙후의 언어에 익숙했던 도민들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자신감을 안겨준다.

삼성전자 반도체 이전 논의는 한 기업의 입지 선택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산업 정책에서 전북은 수도권 집중이라는 관성을 벗어나 지속 가능성과 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원칙으로 이동할 수 있는가를 가능하는 시험대다. 전북 정치권의 이번 결집은 그 전환을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다. 이제 공은 정부와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국가 미래를 위한 결단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그 답은 분명해지고 있다.

문화재 열전



이영춘가옥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유적건조물, 근대가옥
-지정일 - 2003년 10월 31일
-시대 - 1920년경
-소재지 - 군산시 동개정길 7 (개정동)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6년 10월 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00022(윤리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945-4113	군산지국 010-88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원지국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국 010-8640-686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레스지국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국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오늘의시

폭설 / 류근

그대 떠난 길 지워지라고
눈이 내린다
그대 돌아올 길 아주 지워져 버리라고
온밤 내 옥설처럼 눈이 내린다
온 길도 간 길도 없이
깊은 눈발 속으로 지워진 사람
떠돌다 온 발자국마다 하얗게 피가 맺히서

이제는 기억조차 먼 빛으로 발이 묶인다
내게로 오는 모든 길이 문을 닫는다
귀를 막으면 종소리 같은
결별의 예감 한 잎
살아서 바라보지 못할 푸른 눈시울
살아서 지은 무덤 위에
내 이름 위에

아니 아니,아프게 눈이 내린다
참았던 뉘우침처럼 눈이 내린다
그대 떠난 길 지워지라고
눈이 내린다
그대 돌아올 길 아주 지워져버리라고
사나흘 눈 감고 젖은 눈이 내린다

시인 약력 : 1966년 문경 출생. 중앙대학교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박사를 수료했다. 1992년 문화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돼 시인으로

등단했다. 2010년, '상처적 체질'을 첫 시집으로 출간했다. 대학 재학 중 쓴 노랫말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이 김광석에 의해 불

렸다. 저서로는 '함부로 사랑에 속아주는 버릇', '싸나희 순정', '사랑이 다시 내게 말을 거네', '상처적 체질', '어떻게든 이별' 등이 있다.

당신의 하루, 전북타임스가 함께 시작 합니다

2026 익산 대전환의 해 도시를 바꾸는 AI 시동

익산시가 2026년을 '미래도시 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AI를 중심에 둔 3대 산업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정현울 익산시장은 7일 신년 브리핑에서 "올해는 익산이 잠재력을 본격적으로 펼치며 미래 100년의 토대를 다지는 결정적인 해"라며 농업·식품·바이오 산업에 AI를 융합한 고도화 전략을 제시했다.

정 시장은 "그동안 말로만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고, 실행과 성과로 증명해왔다"며 "2026년은 누적된 성과 위에 미래 경쟁력을 본격적으로 쌓아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편집자 주)



◆ 지난해 성과 기반, 미래 전략에 속도
2025년 익산시는 실질적인 성과를 통해 도시의 체질을 바꾸기 시작했다. 오랜 논의에 머물렀던 과제들이 하나씩 실행에 옮겨지며, 변화는 시민의 일상 속에서 체감되고 있다.

호남권 최초 코스트코 입점 확정, 지역사랑상품권 '익산 다이로움'의 실질적 경제효과, 민간특례공원 프로젝트의 성공, 청년 인구 순유입 1위 달성 등은 익산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준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2026년을 '3+AI 전략' 중심의 대전환의 해로 삼아, 산업 구조 혁신과 시민 삶의 변화를 동시에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 인공지능(AI), 산업과 일상을 함께 바꾼다

익산은 산업 구조 전환을 위해 디지털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고, AI 디지털 혁신센터·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AI 기반 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특히 AI 기술을 현장에 적용해 무인·지능형 공정을 실증하고, 고속려자의 기술을 AI가 학습해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AI 인재 양성도 본격화한다. AI 한글화 전담 교육센터를 구축해 시민 대상 기초 교육부터 강화학습 기반 전문인력 양성까지 이어지는 교육 생태계를

갖춘다. 의료 분야에서는 지역대학교와 협력해 지역 기반 AI 의료 인프라를 조성하고,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 개발도 추진한다.

시는 디지털 기술로 시민의 일상을 보다 편리하게 바꾸는 '스마트 도시'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자율주행 유상운송 스마트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 관제센터와 도로 인프라를 갖추고, 자율주행 버스를 연내 운행에 도입시킬 예정이다.

또한 구도심에는 XR 기반 디지털 관광거점을 조성해 문화·관광 영역까지 기술을 확장하고,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 생활 안전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 안전망도 강화한다.



촌 현실에 첨단기술 기반 솔루션을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 기반을 마련해 간다.

◆ 식품 산업에 기술과 문화를 입히다

◆ 농업의 한계, AI로 넘는다

또한 시는 도농복합도시의 강점을 극대화 하고자 농업에 AI를 본격 도입한다.

스마트농업 인공지능센터를 중심으로 농기계·농기자재 개발과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AI 기반 정밀농업 실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트랙터 개발 등을 통해 무인·자율 농작업 시스템을 실현해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

국내 유일의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보유한 익산은 푸드테크 기반 식품 산업 고도화를 통해 세계적인 식품 도시 도약을 노린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식품산업을 기술·문화·관광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AI·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식단, 식품 안전관리, 대체식품 개발 등은 시민 식탁의 질을 높이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동력이 된다. 시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운영해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

특히 계획 중인 국립 익산식품박물관과 식품문화박물관을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닌, 관람객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구현된다. 시는 이를 통해 식품도시 익산의 브랜드 가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 바이오 산업 중심 도시...레드·그린 바이오 다 잡는다

익산은 그린바이오와 레드바이오 분야를 모두 아우르며 바이오산업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시는 전국 최초로 조성한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를 중심으로 바이오기업 창업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이어 K-그린바이오 혁신 허브를 구축해 산업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7일 익산시 신년 브리핑 실시 '3+AI' 전략 산업·일상 함께 혁신 농업·식품·바이오 강점 분야에 'AI 성장 엔진' 더해 미래 기틀

레드바이오도 성장에 속도를 낸다. 5 단계에 걸쳐 조성되는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와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시제품 생산시설, 임상시험센터 등을 중심으로 익산을 국내 최대 동물용의약품 산업 거점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인공혈액, 인공장기 등 다양한 동물 바이오 기술 개발이 이뤄지며, 익산은 동물용 의약품 산업의 선도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 분야별 전략 추진으로 도시 균형 발전

시는 '3+AI 전략' 외에도 △경제·SOC △역사·문화·관광 △보건·복지·교육 △친환경·생태복원 △안전·행정 등 5대 분야의 핵심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청년시정·통합일자리센터를 기반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고, 관광 분야는 백제유적 정비와 문화형 축제를 강화해 전

만 관광도시 기반을 다진다.

보건·복지 분야는 모아복합센터, 어린이 전문병원, 노인인력개발교육원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긴급지원과 돌봄체계를 고도화해 복지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한다.

환경 분야는 도시숲과 생태축 복원, 노후관로 정비 등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고, 행정 분야는 재난안전 산업진흥원 설립, 주민참여예산, 친절행정을 통해 시민 체감형 행정을 구현한다.

정현울 시장은 "도시의 미래는 행정뿐 아니라 현장에서 땀 흘리는 시민, 지역을 지켜온 공동체의 신뢰,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과 함께 완성된다"며 "올해도 동심동덕(同心同德)의 자세로 시민과 호흡하며, 도시의 미래를 실천과 성과로 보여내겠다"고 책임행정을 약속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붉은 말의 해 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丙午年

金石爲開

[금석위개] 강한의지와 정성으로 어떤일이든 해낼수있음을 비유하는 말

장수군